

목차

발간사	2
축사	4
성북동 최순우 옛집을 찾아서	8
담담한 마음과 넉넉한 미소를 품은 집	8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계속됩니다”	10
문화예술인 초대석	16
대금산조의 전설, 민속악의 대부 - 죽향 이생강	16
책이 좋아 책을 만드네 - 북디자이너 정병규	22
한 폭의 그림 같은 이야기 - 도선 김용현	28
전통 서예의 틀을 깨다 - 나현 이은설	34
시간을 달리는 소녀	38
연출후기 - 무모했던, 그러나 행복했던!	40
관람후기 - 내일을 달리는 뮤지컬이 될 수 있도록	44
2014 역사문화탐방 답사기	48
강화도 - 텅 빈 유적의 아우성	48
충남 공주 - 지혜와 감사의 마음	51
2014 성북문화원 소식	54
2014년도 외부 경연대회 수상 회원	54
수상소감 - 나는 이렇게 젊음을 실현한다	56
2014년도 성북천 깃발전 수상작	58
사진으로 보는 2014년 성북문화원의 활동과 성과	64
2014년 성북문화원 임원명단	76
2014년 성북문화원을 후원해 주신 분들	78

『성북문화』 2호를 내며

『성북문화』가 2호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해 창간호를 발간하며 『성북문화』의 발간을 이어갈 것을 이야기 하였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4년은 유독 가슴 아픈 일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연이은 참사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바로 사람보다 돈이 앞서는 사회 풍조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편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람 중심의 문화’라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는 사람들이 살아온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는 의(衣)문화, 식(食)문화, 주거문화 등 생활문화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방식,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니 모든 문화의 시작은 내가 이웃과 만나고 생활하는 곳, 바로 지역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성북문화원은 2014년 한 해 동안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입적 70주기 추모제, ‘선잠제향의 어제와 오늘’과 같은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시민들이 보다 쉽게 지역문화를 접할 수 있게 우리 지역의 4.19를 다룬 ‘시간을 달리는 소녀’, 한용운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룬 ‘심우’, 미아리고개의 역사를 담은 ‘특별한 손님’등의 뮤지컬을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미아리고개와 한양도성의 역사를 담은 책도 발간 예정에 있습니다. 『성북문화』 2호에는 이러한 성북문화원 일년의 성과들이 담겨 있습니다.

2014년 성북문화원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2015년 성북문화원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고 공유하여,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역문화 창달에 앞장서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성북문화원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준 구민 및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뛰어준 성북문화원 직원들의 노력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성북문화원장 조태권



북악산 중턱에서 바라본 성북구

축사

성북문화원의 『성북문화』 2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1996년, 성북구민의 염원이 모여 설립된 성북문화원은 어느새 성북구의 전통문화 지킴이이자 열린 문화공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한 성북문화원의 노력은 그간 발간한 많은 책자와 제작한 공연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다례와 선잠제향 등 전통행사를 주관하며 우리 구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데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강사진과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역시 우리 구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로 2호를 맞이한 『성북문화』 역시 성북구의 문화 발전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진솔한 역사와 유서 깊은 전통이 아름다운 글과 사진으로 기록되어 하나하나 이 책 속에 쌓여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와 공동체를 향한 발언도 이 책을 통해 공유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북문화』가 온 구민의 사랑을 받는 읽을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성북문화』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꾸준한 발간을 통해 성북구의 문화발전에 힘써주시기를 문화원 관계자들께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북구청장



2014년 한해의 마무리와 다가올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성북문화』 2호가 구민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성북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북문화원의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성북문화원 조태권 원장님과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북구는 다양한 문화유산과 우리 지역과 역사를 함께하며 살아오신 어르신들, 그리고 어린 인재들이 꿈을 키우는 수많은 초·중·고·대학교들이 한데 어우러져 도시 전체에 역사와 미래가 공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 성북의 특색에 맞춘 성북문화원의 다양한 문화 사업들과 문화강좌는 구민 여러분께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키우고 성북의 문화적 유산을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성북문화』 2호는 그동안 성북문화원에서 진행해 온 다양한 문화 사업을 하나로 엮은 소중한 결과물로서 우리 구민들과 생각을 나누는 훌륭한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성북문화원이 다양한 사업들과 『성북문화』 발간을 통해 구민 생활 속에 함께하기 바라며, 또한 즐거운 휴식의 공간으로 발돋움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성북구의 다양한 문화 유산을 후대에까지 계승·발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희망찬 2015년, 성북문화원과 문화원 가족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성북구의회 의장 임태근



1990년대 초 마이리고개

축사



유승희
국회의원 (성북갑)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입니다. 성북구는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될 만큼 많은 문화·예술인이 살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성북동,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정릉과 의릉 등 수많은 역사문화자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북한산 자락에 위치하여 높은 산과 깊은 골로 이루어진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문화 자원과 자연 환경은 모두 우리 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1996년 창립한 성북문화원은 성북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 관련 도서를 발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유아에서 노년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강좌를 통해 문화의 저변을 넓혀오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로 2호를 맞는 『성북문화』 역시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성북문화원은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입적 70주기를 맞이하여 추모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밖에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많은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성북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성북문화원의 노력에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노력이 계속 이어져 『성북문화』 역시 20호, 100호를 맞이할 수 있는 튼튼한 기초가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성북문화』 2호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015년 성북문화원의 새로운 도전에도 힘찬 지원을 보냅니다.





신계륜
국회의원 (성북을)

유독 가슴 아픈 일이 많았던 2014년은 빨리 보내고 싶기도 하고, 그만큼 아쉬움이 남기도 하는 한 해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성북문화』 2호의 발간소식은 그 안에 들어있는 역사와 문화 이야기에 대한 기대로 슬픔과 아쉬움을 잠시 잊을 수 있게 합니다.

성북구에는 조선에서 현재에 이르는 오랜 역사문화 자원이 있으며, 다양한 계층이 공존합니다. 그만큼 문화예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다양하고, 그 수준 또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원천자료를 발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해온 성북문화원의 지난 일 년 동안의 성과는 더 뜻깊게 느껴집니다. 이 지면을 통해 성북문화원의 조태권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창간호 축사를 부탁받은 것이 바로 어제 같은데 2호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하니,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는 옛말처럼 어찌면 창간호 발행보다 더 힘들었을 『성북문화』 2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2015년 한 해에도 성북문화원이 지역문화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담한 마음과 넉넉한 미소를 품은 집

글 | 최호진(재단법인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사무국장)

최순우 옛집은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 서서》의 저자인 최순우(1916~1984, 본명 최희순) 선생이 살던 집입니다. 옛 궁정동의 집이 헐리게 되자, 지인들을 통해 이사갈 집을 수소문하던 중 성북동에 있는 ‘한옥’이라는 이야기에 1976년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평생 한국미에 대한 심미안을 가지고 돌아가실 때 까지 국립박물관에서 일하시며, 예술가들과의 폭넓은 교류를 가지셨고, 아름다운 글을 집필하시던 공간입니다.

크고 화려한 집은 아니었으나, 193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중부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튼 미음(口)자 형태의 한옥으로, 안마당과 뒷마당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만의 높은 안목으로 정갈한 모습으로 집안 곳곳을 꾸미셨습니다. 생전의 사진을 보면 뒷마당의 크고작은 식물과 바둑이가 보이고, 안마당에는 파초를 비롯하여 부엌탁자 위의 소품들과 뒷마루에 나온 함지박이

보이는데, 평안해 보이는 선생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외관은 한옥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안채는 동쪽의 끝 두 칸은 선생의 사랑방으로, 그 옆은 침상이 놓인 방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안방은 길게 터서 쓰임새를 갖추게 하며, 부엌은 안채의 서쪽 끝으로 내달아 사용하여, 실제 생활에 맞게 고쳐서 쓰셨다고 합니다. 명절이면 손님들이 들이닥쳐 사랑방에서 음식과 담소를 나누셨고, 평소에는 돌과 나무가 항상 물기를 머금고 있어 집 전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의 사랑방에는 앞뒤로 다른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안마당 쪽으로는 선생이 직접 쓴 “두문즉시심산(杜門卽是深山; 문을 닫아 걸면 이곳이 곧 깊은 산중이다)”이 걸려있고, 뒷마당쪽으로는 “오수당(午睡堂; 낮잠자는 방)”이 걸려있습니다. 아름다운 글을 집필할 수 있었던 선비의 마음을 알 수



모란이 핀 최순우 옛집 안마당

있음과 동시에 넉넉한 미소를 짓게하는 의미를 함께 느껴볼 수 있습니다.

2002년 내셔널트러스트를 통해 자칫 잊혀질 수 있었던 인물의 가옥이 시민문화유산으로 탄생합니다. 선생의 생전 지인들과 사진 자료들을 통해, 변형되어 있던 한옥의 모습을 다시 살려내고 사랑방을 꾸미는 작업을 마치고, 2004년 4월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일을 민간의 힘이 모여 이루어낸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처음 공개를 하면서 바깥채는 (재)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의 사무공간과 회의실로 만들고, 안채 두 칸은 선생의 생전 사랑방의 모습으로 재현하였으며, 대청과 건넌방에는 선생의 유품과 가구들로 채워졌습니다. 골목으로 길게 나와 있던 돌계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 대문을 집 앞쪽으로 다시 들이게 되었고, 큰 지하 보일러실이 있던 곳은 메우고 실내 공간을

확장하면서 작은 마당을 갖도록 했습니다. 시민들이 찾아 올 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뒷마당에는 넓은 돌탁자와 장독을 구성하고, 안마당에는 매화를, 뒷마당에는 청죽을 심었습니다.

여러 해를 거치며 집은 또 넓고 계속적으로 손을 보게 됩니다. 2013년에는 지붕을 드러내는 큰 공사를 진행하였고, 안채 내부는 사진 자료 등을 통해 현판의 위치를 바꿔달고, 바깥채는 전시공간을 더 확충하게 됩니다. 안마당에 심겨졌던 매화는 옮겨가고 다시 구석 마당에 새로운 매화를 심었습니다. 10년간 내셔널트러스트가 지켜 온 ‘최순우 옛집’은 다시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계속됩니다”

— 최호진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사무국장을 만나다



최순우 옛집 뒷마당

올해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이하 내셔널트러스트)이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내셔널트러스트의 노력을 정부에서 알아주는 것 같아 저도 함께 기뻐합니다. 수상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감사합니다. 2014년부터 <대한민국 문화유산상>이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간 민간 영역에서는 개인이나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에 주로 상을 주었습니다. 우리 재단도 2004년 설립 이후 봉사와 활용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지만, 근본적으로는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일이 제일 큰 사명입니다. 올해에는 보존·관리 부문의 공적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6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우리사랑상’을 받은 적이 있고, 대통령표창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많은 후원자 분들과 자원활동가 분들께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셔널트러스트라는 이름으로 운동이 시작된 것은 1895년 영국에서부터입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을 거치며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스스로 지켜야 하는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훼손 위기에 있는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을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증과 기부를 통해 확보하여 영구히 보존하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전통적인 공동체라는 생활문화가 그와 정신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의 합의를 통해 농산어촌의 경관을 지키고 문화와 자연을 지켜왔지만, 일제강점기, 전쟁과 국가재건기를 거치며 급속도로 파괴가 되어 왔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내셔널트러스트 활동이 시작된 것은 언제입니까?

한국에서는 1990년대에 지역을 중심으로 산과 근대건축물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환경운동의 차원에서 먼저 내셔널트러스트의 적극적인 도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전국 차원의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2000년에 사단법인 내셔널트러스트운동(현 사단법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이 설립되면서 구체화되었고, 2002년에 첫 환경자산과 첫 문화유산을 시민기금으로 매입하는 성과를 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문화유산이 바로 ‘최순우 옛집’입니다. 그리고 최순우 옛집의 보수를 끝내고 2004년 4월 일반에 개방하면서 문화유산 분야의 전문적인 보존 활동과 모금을 위해서 설립된 것이 재단법인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입니다.

내셔널트러스트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셔널트러스트는 우선적으로 훼손 위기에 있는 유산을 선정을 합니다.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여 보존 대상 건물이나 지역을 선정하고, 이후 모금과 기증을 유도하며 유산을 직접적으로 확보합니다. 소유권을 확보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개발에 맞서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확보한 유산은 자산으로서 단체와 시민들의 참여속에 영구히 보존되게 됩니다.

국장님께서 이 일에 뛰어드는 계기는 무엇입니까?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막연히 회사 생활을 해야 하나 하는 고민 속에, 한 선배의 권유로 이 일에 대해서

“ 각 지역마다 특색을 가진 건축물들도 많고, 오래된 물길이나 도시의 골목, 요즘은 근현대시기의 생활문화유산들도 이제는 보존을 해야 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알고 2002년 10월부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대학원 지도교수님이 되신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윤인석 교수님께서 인천 개항장의 근대건축물 보존 사업을 추진하던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고, 처음 면접을 봤던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님이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역임하셨던 김홍남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님이셨습니다. 그 때부터 문화유산 분야의 필드에 뛰어들게 된 것이죠.

최순우 옛집을 매입하게 된 사연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셔널트러스트가 문화유산 보존사업을 위원회를 갖추고 시작한 것은 2002년입니다. 첫 해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대상을 찾던 중, 부동산 업자를 통해 성북동의 한 한옥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 한옥이 있던 골목도 다세대 주택으로 바뀌어 가면서, 주변의 개발업자들이 이 한옥의 주인에게 계속 팔 것을 권유하고 있던 시기에 마침 우리 단체가 알게 된 것이죠. 현장을 방문했던 김홍남 위원장님은 이 집이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역임하셨던 최순우 선생이 1984년 돌아가실 때 까지 사시던 집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개인 돈으로 계약금부터 지불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최순우 선생님의 따님이 살고 계셨지만, 내셔널트러스트가 보호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더 좋겠다는 합의를 통해서 이 집을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4개월여 동안 8억이라는 기금을 모금하여 드디어 2002년 12월에 국내 첫 내셔널트러스트운동으로 확보한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시민문화유산은 어떤 절차를 거쳐 선정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시민문화유산 2호와 3호를 소개하자면?

시민문화유산은 전문가와 시민들의 추천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보존을 해야 하니 소유주의 설득을 통해 기증을 유도하며, 기증이 어려울 경우에는 매입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선정 과정에는 보존의 시급성, 시민들의 접근성, 제도적 보호장치 여부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최순우 옛집이 시민문화유산 1호가 된 것은 여러 가지 기준에 가장 부합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시골 마을도 이농현상과 새마을운동으로 그 경관을 잃어버리면서 옛 가옥들이 사라져가고 있었고, 마을 보존이라는 사명을 갖고 전국의 대상지를 찾아보다가 전남 나주시에 있는 도래마을의 한 가운데에 방치되어 있는 1930년대의 한옥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한옥을 시민모금을 통해 매입하여 시민문화유산 2호로 선포합니다. 또한, 최순우 옛집을 잘 관리, 운영해 나가는 모습을 보신 조각가 故 권진규 선생의 여동생께서 조각가가 직접 지은 작업실을 기증하게 되면서 시민문화유산 3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내셔널트러스트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처음 활동을 하실 때와 비교할 때 지금 활동 사정은 어떻습니까?

기부금이 필요한 단체이고, 또한 기본 단체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고액후원자분들의 손길이 더 필요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소액으로 후원하시는 시민들이 점점 늘

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간 남대문 화재 등 문화재 훼손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문화재 인식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세대가 이러한 문화유산을 찾아가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내셔널트러스트의 활동에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에 시민들의 보호가 필요한 문화유산은 얼마나 분포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워지는 건축물도 100년 후에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조선시대 까지 지어졌던 문화유산들은 많은 수가 문화재가 되어 있지만, 아직도 일제강점기 이후에 세워진 건축물들은 보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로 마을이 사라지기도 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어느 순간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각 지역마다 특색을 가진 건축물들도 많고, 오래된 물길이나 도시의 골목, 요즘은 근현대시기의 생활문화유산들도 이제는 보존을 해야 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내셔널트러스트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멸실되어가는 문화유산들이 많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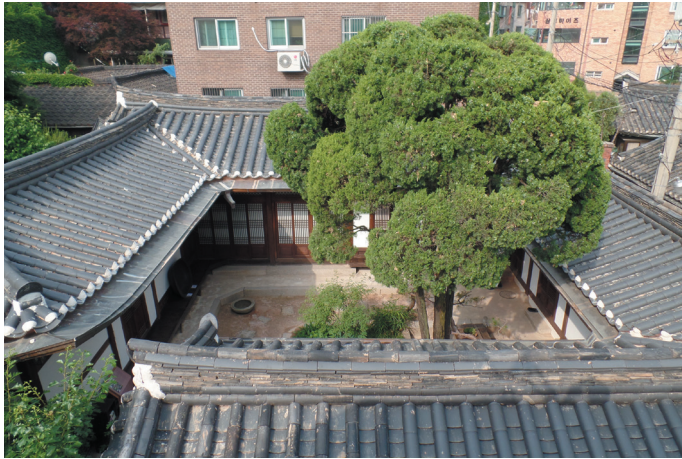
대규모 개발 사업들은 문화재보호법을 넘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 새로운 도시와 물길과 건물을 만들어냅니다. 오래된 골목과 길은 평평하게 바뀌어 고층의 주상복합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내셔널트러스트는 민간의 활동으로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도 훨씬 높아져야 멸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가치는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나 갈등의 소지를 제공하는 듯 합니다. 내셔널트러스트는 이 중에 보존 쪽의 편을 들어주는 단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늘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발과 보존은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있는 곳에는 항상 보존을 위한 움직임이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필요한 곳에 무작정 보존만을 이야기하기에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촌이라 불리는 지역에 예술가의 흔적이 있다는 것으로 남겨진 건물이 있지만, 결국 서촌 전체는 급격한 상업화로 인하여 주거의 기능이 점점 잠식되고 있는 커다란 위험 속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항상 대안을 생각하며 주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동네의 분위기는 물리적인 것에 의해서도 바뀔 수 있고, 그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순우 옛집 안채 사랑방



최순우 옛집 전경

2014년 내셔널트러스트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입니까?

2014년 우리 재단은 설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간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기회가 없었는데, 상반기에는 최순우 옛집에 중수기를 쓴 현판을 달면서 그 자리를 마련했고, 하반기에는 10년간 후원해주셨던 분들을 모시고 감사패를 전하면서 지나온 10년을 자축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후원회원 분들 및 일반

시민 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 가장 기쁜 일이었습니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것도 중요한 성과겠지만, 결국 평상시 우리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작은 움직임들이 지속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그리고 2015년 계획이 있다면요?

너무 많은 행사들을 진행하다 보니, 우리 재단의 정체성을 드러낼만한 일관된 방향이 잘 드러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프로그램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일회성 행사들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완해서, 2015년에는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과 내셔널트러스트라는 이름을 잘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기획단계부터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실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앞으로의 10년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현재 성북구에 남아 있는 한옥은 모두 2,749채로 서울시 전체 한옥의 23.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종로구 다음으로 많은 한옥이 있는 지역이 성북구인데요. 이 한옥들을 어떻게 보존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근대건축 보존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 관심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시에 대한 시야도 넓어지고, 개별 건축물의 보존도 중요하지만, 군락을 이루고 있는 집과 골목, 도시 구조의 변화까지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개별 한옥의 보존도 필요하지만, 군집되어 있는 환경을 보존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행정을 통한 단순 지원책 만으로는 건축비가 비싼 한옥을 신축하고 보수하는데에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종로의 북촌과 서촌으로 대표되는 한옥 지원과는 차별화된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고 봅니다. 개별 소유주들과도 유대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경관 차원의 한옥 보존에 대한 연구나 시범 사업들도 나와야 합니다. 성북은 개별 한옥 보다는 군집과 경관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성북구에는 한옥 말고도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장소들이 많다고 보는데요. 어떤 것이 보존할 가치가 있을까요? 또 개발이라는 가치와 충돌하지 않으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성북구의 한옥과 그 군집은 정말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릉의 정든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에는 한옥 군락과 부흥주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보호 정책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한옥 군락은 엄청나게 훼손이 되어 그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은 소유주들이 스스로 그 가치를 알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시야로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간의 사업은 어느 것을 없애고 어느 것을 남기느냐는 단순한 판단만을 남겨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리적인 판단을 떠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더 중시되어 함께 지켜내자는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업 등이 단순히 행사를 하는 것 이상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성북동이 2013년 10월 역사문화지구로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성북동에서 이것만은 꼭 보존되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북동에서는 남아있는 한옥, 오래된 주거건물과 골목, 시간의 흐름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경관들이 과도하게 바뀌거나 인위적인 설치물들이 생기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 또한 이 동네에 50년 살아 온 분에게는 그 생애 전체의 역사를 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가게들을 빨리 발굴해내고 지속적으로 마을에서 주민들과 공생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주민 생활에 밀접한 용도의 가게들 보다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을 위한 용도의 가게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눈에 띄게 많아져서 걱정입니다.

앞으로 내셔널트러스트가 나아갈 길을 말씀해 주세요.

직접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을 매입하고 기증 받는 것도 좋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지 못하거나 개인이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그 보존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옥 뿐 아니라 근현대건축물도 100년 후 세대를 위해서 시급하게 보존할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활동을 보여드리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월 1만원의 정기후원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양한 회원 참여 프로그램에 우선 참가와 참가비 혜택 할인, 전남 나주 도래마을 옛집의 한옥 숙박체험 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드리지만, 무엇보다 내셔널트러스트가 보존하는 문화유산을 내가 보존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또한 4월부터 11월까지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최순우 옛집에서 정기적으로 자원활동을 하시면서 집을 가꾸고 방문객들에게 직접 집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nt-heritage.org>)와 네이버카페(<http://cafe.naver.com/ntchfund>),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ntfund>)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화 02-3675-3401~2로 문의를 해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정리_ 백외준(성북문화원)

대금산조의 전설, 민속악의 대부 죽향 이생강

대금산조는 한국 민속악의 한 갈래로서 대금을 위한 독주곡이다. 원래 합주 용이나 반주용으로 썼던 대금을 가지고 기악 독주곡인 산조를 만든 것은 20세기 초 대금 명인 한숙구(1849~1925)와 박종기(1880~1947)가 처음이다. 국악 치고는 짧은 역사이지만 가락과 장단을 남도의 시나위와 판소리에서 빌려왔으므로 그 원류는 깊다고 할 수 있다. 1971년 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대금산조 예능보유자는 두 명으로, 이생강은 1996년 예능보유자가 되었다. 1937년 일본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부친의 영향으로 단소, 통소, 대금 등 다양한 우리 관악기를 접했다. 해방을 맞아 귀국한 후로는 1947년부터 한주환(1904~1966) 명인에게 대금산조를 배웠으며, 6.25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 온 임동선, 한일섭, 이충선 명인에게서 피리, 단소, 통소, 소금, 태평소 등을 배웠다. 1960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민속예술제의 대금 독주 공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6,000여 회 공연을 했으며 400여 종의 음반을 냈다. 우리 민속악의 전승과 발전에도 큰 관심을 가져 1999년 총 15집에 이르는 《한국민속무용곡집》을 출판하였는데, 이는 민속무용을 하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음반이다. 국악의 대중화를 위하여 가요나 찬송가를 대금 선율에 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 이런 음반들은 스테디셀러가 된지 오래다. 국악계의 원로이자 대들보이며 산 증인이라 할 만 하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이생강'하면 대금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악기 하나로 청중의 마음을 흔들어 사로잡는, 우리 시대 최고의 뮤지션이라는 칭호가 가장 잘 어울린다. 그를 만나기 위해 성북동에 있는 대금산조 전수관을 찾았다.





“ 6.25가 터져서 부산에서 피난살이를 했는데 그때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많이 배웠습니다. 전국의 명인들이 다 부산에 와 계셨을 때니까. 제 선생님이 스물세 분이신데 그 중 열아홉 분을 부산에서 뵈었어요.

중요무형문화재 대금산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대금산조의 유파로는 한주환과 강백천(1898~1982) 두 분이 계셨습니다. 제 스승이신 한주환 선생님은 대금산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 돌아가셨고 강백천 선생이 처음 예능보유자로 지정 받았지요. 강백천 선생님의 산조는 시나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노래로 치면 장조가 없이 단조만 가지고 노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윗대 선생님들에게 배운 산조는 장조와 단조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죠.

우리나라 국악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궁중악과 민속악 이렇게 두 가지인데 지금 정부기관이나 학계에 포진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궁중음악을 연주하거나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민속악은 사투리와 비슷해요. 지역마다 발생한 고유 음악이 바로 민속악입니다. 궁중악에 비해 방대할 수밖에 없죠. 더구나 궁중악은 체계가 만들어져서 악보로 기록되어서 잘 보존되어 전해져 내려오는데 민속악은 그렇지 않죠. 민속악은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구전심수(口傳心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속악은 체계를 세워서 연구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궁중악에 비해 정부 쪽의 관심이나 지원도 적은 편입니다.

처음 대금을 불게 되신 계기는 무엇입니까?

부는 악기를 다섯 살부터 시작했고 대금은 여덟 살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선친께서 일제 때 자동차 사업을 하셨는데 고향이 울산이에요. 거기에 대나무 밭이 있었나봐요. 놀 것이 없으니까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서 갖고 놀곤 하셨대요. 그러다가 일본에 양아들로 입양을 가셨습니다. 하루는 제가 어렸을 때 새벽에 화장실 가는 길에 아버지가 단소를 불고 계시는 걸 보았어요. 그때 단소를 뺏어서 아버지 무릎에서 불기 시작한 것이 처음이죠. 아버지가 그걸 보시고는 다음날 저를 일본에 아사쿠사라는 곳에 일본인이 가르치는 학원에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다섯 살짜리가 무슨 악기든 소리를 잘 내고 하니까 그 가르치는 사람 말이 ‘이 아이는 천재니까 앞으로 부는 것만 가르쳐라’ 그랬나봐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부는 악기는 뭐든 다 사주셨어요. 입만 떴으면 소리가 나니까. 그런데 일본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음악을 대놓고 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아리랑 같은 것을 불면 아버지께서 조용히 부르라고 하셨어요. 도라지, 봉선화 이런 것을 나중에 알려주시곤 했죠.

본격적으로 음악을 배우신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아홉 살 때 해방이 되고 가족들이 다 부산으로 왔어요. 부산에 있었을 때는 지금 국제시장 있죠? 그쪽에 우리 집이 있었어요. 조금 있다 포항으로 이사를 갔는데 나중에 동해별신굿 기능보유자가 된 김석출(1922~2005) 선생을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의 첫 제자입니다.

한주환 선생님을 처음 뵈는 것이 열한 살때입니다. 그해 아버지께서 전주로 가서 장사를 하셨는데

아버지가 전주역 앞에 건어물을 실은 차를 세워놓으면, 저는 그 앞에서 태평소를 불고 했어요. 열한 살 먹은 놈이 태평소 불곤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동전 던지고 하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아버지한테 왜 사람들이 날보고 동전을 던져주냐고 물어보니까 “조선 사람들은 기분 좋으면 이렇게 한다. 잘하니까 동전도 던져주지, 못하면 주지도 않는다. 감사히 받아라.”하시더라구요.

어느날은 보니까 아주 건강하고 콧수염이 난 어떤 분이 일본 사무라이 검을 차고 지나가는 거예요. 조선에도 사무라이가 있구나 했는데 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꺼내보니까 대검이에요. 아버지가 그분한테 인사하라고 해서, 알고 보니 선생님이셨던거예요. 그때가 1947년이었지요. 삼거리 왼쪽에 보면 4, 5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방을 빌려서 그날부터 대금산조를 배우기 시작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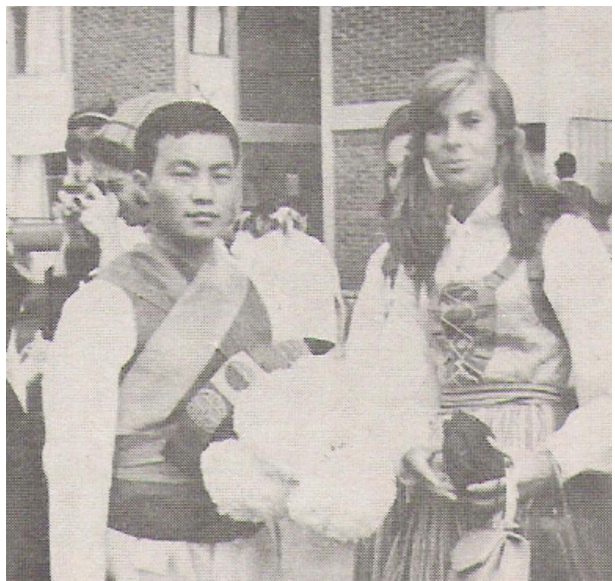
6.25가 터져서 부산에서 피난살이를 했는데 그때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많이 배웠습니다. 전국의 명인들이 다 부산에 와 계셨을 때니까. 제 선생님이 스물세 분이신데 그 중 열아홉 분을 부산에서 뵈었어요. 그때 제가 열네 살이었는데 그분들한테 정말로 귀중한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 배운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겁니다.

대금 독주를 시작하신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처음에는 미8군에서 공연을 많이 했지요. 무용수들이 춤출 때 반주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악사들 다 불러서 하려면 돈을 많이 줘야 하니까 나 혼자 갈 때가 많았죠. 내가 태평소도 불고 뭐든 다 부르니까 제일 잘 팔렸어요. 춤추는 애들이 잠깐 옷 갈아입는 시간에 나와서 아리랑 같은 민요 잠깐 연주하고 그랬죠. 그 다음 제 무대가 끝나면 재즈나 팝하는 사람들이 와서 공연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귀에 들어왔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에 와서 내가 한국 악기를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하고 생각해 봤어요. 난 어릴 때 국악하면서 칭찬만 받고 자랐는데, 나가서 보니 국악을 천시하는 풍조가 심해서 후회도 많이 했죠. 그래도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무용 반주하러 계속 다니고 서양 음악도 외워서 부르곤 하



1944년 여름 일본 구주 와까마쯔집에서
형(오른쪽)과 함께



1960년 5월 프랑스 파리 세계민속음악제에서



성북동 전수관에서 만난 이생강 선생

니까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 식으로 대금 독주를 시작하게 되었죠.

1960년에 4.19혁명 일어났을 때 프랑스 공연을 떠났습니다. 모두 서른세 명이 갔는데 그중 한 분이 지금 태평무 예능보유자로 계시는 강선영(1925~) 선생이었어요. 저는 무용반주를 담당했죠. 반주라는게 같은 음악이라도 날씬한 사람이 출 때에는 음악이 간드러지고 좀 통통한 사람이 출 때에는 음악을 무겁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그렇고 공연 시작 전에 안나영이라고 유명한 영화배우가 있었는데 갑자기 맹장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 바람에 단장이 13분 동안 무대에 나가서 시간을 벌어보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대금산조를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제 연주를 듣고는 난리가 났어요. 코리아라는 조그맣고 전쟁만 있는 나라에 중국이나 일본음악만 있는 줄 알았지 산조라는 깊고 깊은 민속악이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후 유네스코에서 사람들이 와서 대금 속에 무슨 장치가 되어 있는지 보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온갖 자연의 소리가 다 나오니까 도대체 무슨 장치가 있길래 그런지 궁금했던 거지요. 사실 아무 것도 없잖아요. 벌써 55년 전 이야기이지요.

독음의 순간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나는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대금산조는 전라도 음악이란 말입니다? 전라도 음악을 하려면 전라도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못하잖아요. 타고난 억양이 있으니까. 불긴 불어도 제대로 불고 있는 건가 하는 고민이 들더라구요. 그러던 어느날 반주를 하고 다니다가 서울까지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그 때가 66년도이고 익산, 그때 말로는 이리라고 했어요. 거기 중앙동에 있는 여관에서 자는데 옆방에서 아이들이

“외국인들이 제 연주를 듣고는 난리가 났어요. 코리아라는 조그맣고 전쟁만 있는 나라에 중국이나 일본음악만 있는 줄 알았지 산조라는 깊고 깊은 민속악이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시끄럽게 떠들어요. 조용히 하라고 이르고 다시 자려고 하는데 또 아이들이 계속 사투리조로 ‘그렇지~~응? 그래잉? 그레이이이잉~’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때 딱 깨달았어요. ‘아! 이게 판소리구나!’ 이게 산조구나!’ 하고요. 전라도 말이 다 그렇잖아요. 음이 고음에다가 끝이 둥글게 휘어져요. 이렇게 둥글게 표현되는 것이 산조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죠. 이걸 득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대중음악을 대금으로 연주하신 것으로도 유명합니다만...

1960년대 초 일본에 초청을 받아 가서 우리 가요를 몇 곡 연주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가수 김용만이란 분이 그 소리를 듣고 한국가서 같이 하자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고민을 많이 하다가, 대중 없는 예술은 없다, 내가 대중에게 알려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당시 유행했던 <목포의 눈물>, <눈물젖은 두만강>, <황성옛터> 같은 노래를 연주해서 음반을 냈죠. 그게 약 300만장 팔렸습니다. 카세트 나오고 리바이벌해서 다시 팔 정도로 유행했습니다.

국악의 미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요즘 국가에서 국악을 지원한다고 하면 다 어디에 지원하는 줄 아세요? 대부분 국립국악원에 지원하죠. 궁중악 중심으로. 민속악은 방대하고 어렵고 연구하는 사람도 적으니까. 민속악 쪽을 지원한다고 해도 주로 경기음악 쪽을 많이 하지 전체적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민속악은 세계 어디가서도 빠지는 음악이 아니에요. 지금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들은 몇 분 제외하고는 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민속악의 귀하고 가치있는 만큼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책을 정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연습을 계속 하십니까?

하죠. 연습을 안하면 안돼요. 손이 굳어서 안돼요.

최근에는 유아들도 볼 수 있게끔 단소를 만들었어요. 구멍 막기 좋게 돌출되어 있고 이같이하는 아이들도 입술에 잘 밀착되게 입구도 연구를 많이 해서 만들었어요. 단소로 동요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요즘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군대에서든 그렇고. 음악만큼 인성교육에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악기를 불면 누구나 마음이 차분해지고 마인드컨트롤이 됩니다. 학교에서든 군대에서는 우리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북문화원에서 많이 노력해 주세요.

정리_ 백외준(성북문화원), 박은한(한성대학교 4학년)

문화예술인 초대석 2

정병규(정병규디자인 대표)

책이 좋아 책을 만드네
북디자이너
정병규



서울 서교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북디자이너 정병규

한 권의 책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손길을 거쳐야 한다. 그 중 북디자인은 책의 물질적 형태를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중요한 공정이다. 책의 겉표지는 물론 내지와 본문의 꼴을 잡는 것도 북디자인의 영역이다. 현대적 의미에서 북디자인이란 그저 책을 보기 좋게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의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개념을 처음 한국에 도입하여 실천에 옮긴 사람이 있다. 바로 북디자이너 정병규이다.

정병규는 1946년 대구에서 태어나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 고려대 불문과, 파리 에스피엔느에서 수학했으며, 도쿄 유네스코 편집자 트레이닝 코스를 거쳤다. 《고대신문》과 《소설문예》, 신구문화사, 민음사, 홍성사 등에서 편집, 기획, 디자인 등의 일을 맡아 했다. 1984년에는 공식적으로 국내 첫 편집디자인 전문회사인 '정병규 출판디자인'을 차렸다. 1996년에는 그의 20년 작업을 모아 한국 디자인 사상 첫 북디자인 개인전인 '정병규북디자인 1977-1996'전을 열었다. 2008년에는 문지 문화원 '사이'에서 훈민정음 강의를 했다. 2009년부터는 중앙일보 아트디렉터로서 대학시절 이래 관심을 두어왔던 신문디자인에 종사했다. 2011년 정병규학교를 설립,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3,000여 권의 책을 디자인하였고 최근에는 '테이프 타이포그래피'라는 독창적인 시도를 이어나가고 있는 북디자이너 정병규, 그를 서교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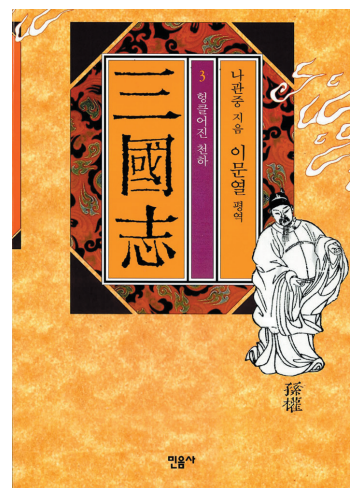
북디자인을 시작하신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디자인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나를 디자이너 정아무개라고 그러면 굉장히 쑥스러워요. 개화시대에 정치했던 사람들이 정치가라는 말을 들었을때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책을 좋아했어요. 중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다녔는데 교지를 만들었어요. 요즘 말로 디자인을 해본 거죠. 그림도 그려놓고, 글자도 써 놓고. 또 수업시간에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 멋있어 보여서 했죠.

대학 다닐 때는 신문사에서 편집국장으로 있으면서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학생시절은 공부와 학점이 메인인데 신문이나 교지 편집에 공을 들였습니다. 졸업하고 잡지 회사에 취직했을 때도 편집자로서 교정은 안 보고 디자인에 손을 댔어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작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후배들은 좀 불쌍사납게 보겠지만 저는 아직도 이 일을 하는게 좋아요. 우리 디자인 업계에서는 사십대 중반 넘어서 현장에 디자인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십 넘은 디자이너들은 직접 일하지 못하게 하지요. 책임자 한 사람만 놔두고 나머지는 나와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는 고민은 한국 디자이너들 전부와 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으니까 그게 위안



한수산 소설 《부초》초판 (1977년 작) (왼쪽),
이문열 평역 《삼국지》 (1988년 작) (오른쪽).

“여기에 발을 들여놓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네가 정말 좋아서 하지 않으면 못 견뎌내고 진솔하게 이야기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멋있다고 한다면 모든 작업에 자기 이름이 붙는 거겠죠.

이 되긴 합니다. 누가 만약 저한테 왜 아직까지도 디자인하냐고 물으면 ‘니네들은 잘 몰라. 나중에 보면 알아’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도 이 일을 하는 것이지요.

북디자인에 중사하는 분들의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북디자인 분야는 큰 돈이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다. 깍해야 백만 원 단위이지요. 그런 거 다 알고 시작했으니 이에 대해서 불만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분야는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해요. 오래 못 견뎌요. 여기에 발을 들여놓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네가 정말 좋아서 하지 않으면 못 견뎌내고 진솔하게 이야기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멋있다고 한다면 모든 작업에 자기 이름이 붙는 거겠죠. 그거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디자인의 원칙이 있다면?

디자인은 자기의 삶이 배어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디자인들이 아직도 많아요. 디자이너가 생각없는 기능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십대부터는 그 문제를 내 속으로 옮겨와서 싸웠어요. 인문학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글쓴이가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 하니까. 가령 고대사 분야의 책을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분야의 중요한 학자들이 누군지, 또 그들끼리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책을 만드는 것보다는 책을 읽는 게 훨씬 좋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1980년부터 미술사학자 이동주의 흔쾌한 동의를 얻어 디자인한 대우학술총서의 겉표지와 속표지.
디자인 교과서에 따르면 책은 양장이 기본이며 속표지에는 아무런 글자도 써넣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책의 역사이고 문화라고 정병규는 말한다.

북디자이너와 출판업자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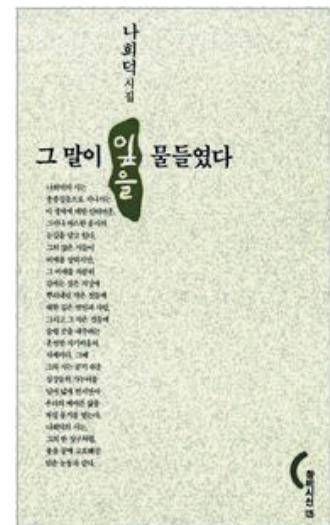
참 안타까운게 말이지요. 저는 출판 문화와 책의 문화를 구별하자고 주장합니다. 책은 글에다가 물질적 존재감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감이 근대에 들어와서 제도화되고 상품성을 띄게 되었죠. 출판사가 대량으로 책을 찍어내고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쳐 책을 팔지요. 그러면서 책의 존재감이 상실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책을 만드는 디자인은 지금의 이 출판시스템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비판하지 않으면서는 성립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디자이너들은 책을 질적으로 보는데, 출판사에서는 책을 숫자로 보니까. 우리에게 책은 책인데 출판사 입장에서서는 상품이죠. 마치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와 같아요.

요즘 한국 출판시장은 예전에 비해 많이 성장했는데 디자인에는 거의 관심을 안 써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70년대에 비하면 한국 출판계의 외형은 엄청 커졌습니다. 그때에는 3만 부나 5만 부만 나가도 대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만 부가 넘어가도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더 나은 디자인, 더 나은 질의 책을 만들려고 하는 출판사는 많지 않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 책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본문 활자의 색깔입니다. 옛날 나온 책들은 납활자로 찍으니까 비교적 똑똑한데, 요즘 나오는 책들은 다 글자가 회색이에요. 집에 돌아가서서 한 번 영어로 된 인쇄물하고 요즘 한국에서 나온 책하고 비교해 보세요. 영어책의 글자는 새까맣습니다. 그런데 한국 책은 그렇지 않아요. 공장에서도 새까맣게 인쇄를 하지 못해요. 100% 인쇄하면 종이가 견뎌내질 못하니까 70%나 50%로 흐릿하게 찍습니다. 요즘 들어 더 심해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 독자들은 그런 걸 용인하고 있어요. 파주에 출판도시 같은 것을 만들기보다 이런 기본부터 지켜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책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인류가 이루어낸 것 중에 책 빼놓고 뭘 말할 수 있겠어요? 요즘 전자책이 나와서 유행하고 있는데 전자책과 책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책이란 보통명사를 똑같이 붙여서 착각하는 것이죠. 이런 비유가 가능할까요? 귤과 레모나. 책이 귤이라고 하면 전자책은 레모나 같은 것이지요. 비타민 섭취하려고 레모나를 먹는 경우는 많지만 귤 먹는 사람 중에 비타민 섭취하려고 먹는 사람 있나요?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귤은 애인처럼 같이 먹는 경우, 친구랑 먹는 경우처럼 다 먹는 장소와 상황이 다릅니다. 레모나는 그렇지 않지요. 책과 전자책의 관계도 똑같은 겁니다. 전자책에는 텍스트로 된 정보밖에 없지만 책은 다르죠. 책이 놓여진 곳에는 더 깊고 풍부한 의미망이 형성됩니다.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20세기 후기구조주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모든 의미는 장소에 따라서, 놓여진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 아닐까요? 아날로



창비시선
(1990년대 초반 작)

그와 디지털은 절대 같을 수 없어요. 디지털 업자들이 말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둘 사이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해요. 책을 단순히 텍스트를 모아둔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도시디자인 혹은 공공디자인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장 큰 비극은 아직도 디자인을 장식이나 외피로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은 디자이너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나 시청에서 하는 것이 이미 고정관념으로 되어버렸어요. 이것들이 한국 디자인을 만들어가는 문화적인 무의식입니다. 디자인 교과서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공공디자인 역시 디자이너들의 영역인데 한국에서는 그보다 제도나 행정이 우선시됩니다. 정치적으로 선거용으로 디자인이 활용되는 경우도 많지요. 이런 것을 보는 우리 디자이너들은 어떻겠어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슬퍼요.

성북구의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

공공디자인하면 먼저 떠오르는게 건축입니다. 무엇보다도 건축가들과 잘 상의해서 해야지 디자인만 떼내어서 하면 안될 것입니다. 또한 인문학자나 지역사회의 향토사, 지역사 연구자들도 참여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사인보드를 보면 특징이 다 없어져버렸어요. 그 동네의 특징을 표현하는 사인보드는 고차원적인 디자인 전략이죠. 다시 말해 공공성과 지역성, 보편성과 특수성을 잘 조화시켜야 합니다. 성북구에서 공공디자인을 한다고 하면 공공성과 성북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죠. 또 장기적으로 어떻게 맥락화를 시켜나갈 것인가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성북구가 전국 공공디자인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아직 그런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성북구의 공공디자인이 한국의 공공디자인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디자인하신 책을 가져왔습니다. (2009년 개정판으로 나온 최인호의 소설 《상도》를 내보이며...)

제호를 보시면 이걸 제가 인쇄소에서 쓰는 검정 테이프를 자르고 찢고 붙여서 만든 겁니다. 이런 작업을 한 10여 년 했는데 요즘 이걸 테이프 타이포그래피(Tape Typography)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줄여서 티티(TT)라고 합니다. 네이버캐스트에 들어가보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게 된 고민은 이거예요. 사람이 처음에는 글을 새기다가, 그리다가, 쓰다가, 활자를 만들어 찍기 시작했죠. 찍는 게 15~16세기부터 시작되었으니까 한 오륙백년 되었고요. 그러다가 치기 시작했고, 이제는 터치하기 시작했죠. 전체적으로 보면 기호와 인간 사이에 축각적인 장의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한글을 그런 맥락 속에 넣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한글의 가장 큰 특징은 쓰기도 하고 그리기도 하는 글자예요. 그게 한자를 품어 안고 있는 한글의 위대성이예요. 세종의 생각이기도 하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문자를 활자의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차원에 옮겨보자 생각했습니다. 손의 도구성을

“ 공공디자인은 공공성과 지역성, 보편성과 특수성을 잘 조화시켜야 합니다. 성북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성북구의 공공디자인이 한국의 공공디자인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더 확장하면 찢어 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테이프로 글자를 만들어 본 거죠. 전략적으로 티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잘 되겠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해줘야 하는데 말이죠.

요새는 (상도 글자 옆에 그려넣은 것 같은) 이런 이미지도 안 쓰려고 해요. 참 편하면서도 디자인을 망치는 요소가 이미지이거든요. 한글만으로도 도상적 이미지가 대신할 수 없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은 그 문화권 디자인의 완성입니다. 도상적 이미지가 아닌 문자 스스로 만들어 내는 디자인은 전혀 다르고, 강렬하고, 새로운 것이죠. 왜냐하면 의미를 품고 있으니까.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디자인의 수준은 그 나라 문자만 가지고, 조형이나 이미지 없이 그 자체로 표현하는 것에서 결정됩니다. 한국도 그렇게 가야죠. 그런 점에서 한글은 너무 좋은 점이 많아요. 제가 계속 훈민정음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서양이 하지 못했지만 한글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글의 전통을 되살리자고 말로만 하면 뭐해요? 인문학자들은 말로만 하면 되는데 우리 디자이너들은 실천이 따라주지 않으면 신빙성이 없어요. 디자이너들은 말도 하고, 글도 쓰고, 실천도 해야 합니다.

북디자이너를 꿈꾸는 어린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책 한 권을 만든다는 것은 집을 하나 짓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멋진 일이지요. 그러나 이런 일은 여건이 마련되어 있을 때 해야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큰 돈을 벌거나 이를 밑천으로 큰 인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앞으로 책을 만드는 디자인 쪽에서 제대로 동서양을 아우르는 중요한 작업의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고자 하는 희망과 자신이 있으면 정말 해볼 만한 일이지요. 재미있고 좋습니다. 앞으로는 대중들도 독자들도 그런 것을 알아주리라고 기대합니다. 해볼 만한 일이지요.

정리_ 백외준(성북문화원), 이주연(한국예술종합학교 2학년)



테이프 타이포그래피(TT)를 활용한 북디자인

문화예술인 초대석 3

김용현(성북문화원 사군자 강사)



한 폭의 그림 같은 이야기
도선 김용현



독도

도선 김용현 선생님은 성북문화원 개관 초기부터 ‘사군자’반을 개설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시(詩), 서(書), 화(畵)에 모두 능한 예술가이다. 20세기 중국 화단의 대가 장대천 화백의 계승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제4회 한중문화교류전’에서 유일한 대한민국 작가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자문위원이자 대한민국명인미술대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다양한 작품전을 통해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사군자, 화조화, 수묵산수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그 장르의 특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동양화, 사군자, 수묵화, 화조화 등이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구분을 두고 보자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사군자입니다. 거기에 팔군자, 십군자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이죠. 통틀어 문인화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동양화는 서양화와 구분하기 위해 쓰는 말이고, 수묵산수화는 먹과 물을 섞어서 그것을 가지고 밑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채색이 올라가면 수묵담채화가 되는 것이구요. 화조는 말 그대로 꽃과 새를 그려서 화조화인 것입니다.

제가 동작구 장승배기에서 8년간 학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서예, 동양화, 수채화, 문예화, 사군자를 다 가르쳤어요. 일단 학원을 열면 다양하게 가르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양화도 반을 따로 만들어서 강의했고, 사군자, 화조화 등 여러 가지를 가르쳤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말해보는다면, 그림 속에 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집유화. 그림 속에 시가 있고 시속에 그림이 있는 것이죠. 그림만 그리면 반쪽 화가라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입문을 할 때 서예를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문인화, 산수화를 가르칩니다. 이론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판검사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판사 사택에서 시·서·화 즉 시객, 화가, 서예가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림 한 폭, 시 한 편을 남기고 가는 시객들의 모습을 어깨 너머 보고 자란 유년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보니 글을 좋아하고 시·서·화에 모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명성이 상당하시고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찬입니다. 그냥 오래하다 보니 제가 성북동과의 인연이 36년째입니다. 문화원 전에 구민회관에서부터 인연이 있었지요. 사무실도 거기에 있었구요. 항상 70~80명씩 운영을 하다가 그곳이 폐지되면서 내려와 장위동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아홉 군데를 강의했었는데, 지금은 여기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사만을 하지요. 제자들이 강의를 나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에게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갤러리도 차렸는데 을지로 세운상가에 있는 도선갤러리입니다. 얼마 전에는 글을 오래 배우고 싶고, 작가로 활동하고 싶은 사람들을 양성시키기 위해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국내에서만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호주 신문에 게재된 광고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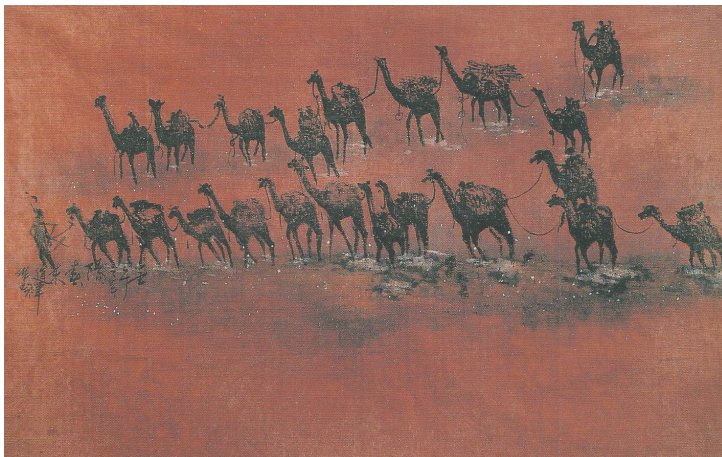
지인을 통해 호주의 시드니 모닝 헤럴드(Sydney Morning Herald)라는 신문사에서 교섭이 들어왔어요. 8.15 광복절을 기해서 그림 좀 하나 그려달라고 하더라구요. 거기 호주에 한인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8.15 광복절을 위해 대대적으로 기사를 터트리려고 계획적으로 저를 선정한 거예요. 독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고자 한 것이죠. 독수리가 독도를 지키는 콘셉트로 태극기를 안고 내려오는 모습을 그려내었습니다.

성북문화원 회원분들과 사군자, 수묵산수화 같은 전통미술을 배우고자하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 해주신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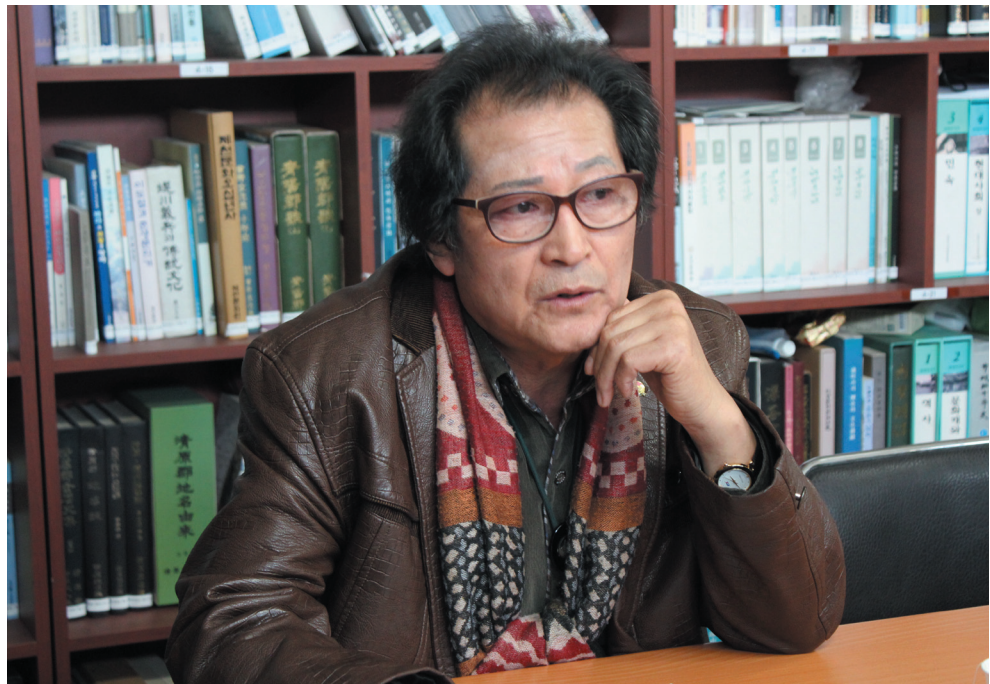
요즘 취미 활동이 많이 있잖아요. 어학이나 스포츠 같은 취미도 좋지만 후세 까지 전달 될 수 있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원분들께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동양화를 배운 사람들이 하나 같이 “좀 더 빨리 이걸 알았으면...”하는 말을 많이 해요.

사실 전통미술을 배우고자 문을 두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수강생과 강사가 일대일로 쓰고, 그려내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쿵쾅하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지만 어렵기 때문에 예술이고 희소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 때는 미술 학원이나 피아노 학원을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 분들이 주로 와서 배



사막의 여정



성북문화원
향토자료실에서
만난
김용현 선생님

우는데 늦었다고 생각 말고 ‘늦었을 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그린 그림 하나 전시하는 보람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자녀가 시집 장가갈 때 작품 하나 걸어주면 그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 만한 일이 될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서·화하는 것을 손자 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손들이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손녀가 내 흉내를 내더군요. 맹모삼천지교라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면 이 배움이 연계가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강의를 하시면서, 화가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에피소드는 많지만 강의 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자기 그림 앞에서 자만을 할 때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이만큼 했으니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자청도(知者聽道)라고 남의 가르침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데 자기만의 조그마한 상식 안에서 ‘이만큼이면 됐다’하며 자만하는 것이죠. 그림은 항상 자기 속 안에 있는 내면세계를 끄집어내어 표출하는 것인데 자기 안에 갇혀서 맘껏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작품의 구상이나 영감은 주로 어떻게 얻으시는지?

화가로서는 영감을 어디서 얻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영감을 주위에서 얻습니다. 영감은 어떤 것이든지 소재가 될 수 있어요.

백운산 자락에 작업장이 있어요. 밭에 농사도 지어보고 고추도 심어보고, 거기 올라오는 새싹을 길러보고 꽃도 길러보곤 합니다. 화가는 천진난만해야 해요. 그래야 그림이 순수해져요. 자연을 제대로 모르고 거역하고 그린다면 절대 승화가 되지 않거든요. 피사체를 겉으로만 보고 그린다면 누구나 그릴 수 있을

평온



겁니다. 핵심은 무엇이나 하면 그림에 호소력이 담겨 있는지, 그림에 어떤 의미로 녹아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림에는 사의적 그림과 사실적 그림이 있습니다. 사실적 그림은 북종화라 하고 사의적 그림은 남종화라고 해요. 사의적 그림은 무한대로 표현이 가능해요. 이 그림은 어떤 느낌을 갖고 인성을 내품는지 작가의 역량마다 차이가 있을 뿐 소재는 무한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재료가 될 수 있고, 모티프를 만들어 갈 수도 있어요. 따로 찾는 게 아니에요 자연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도 대화를 하다가도 얼마든지 생각 속에 품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매력 있는 그림이라 생각해요.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문화와 전통 문인세계를 지금까지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시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실생활에 취미도 되고,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젊은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좀 더 대중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미술교육이 서양화입니다. 기초를 서양화로 배우고 동양화는 따로 배우는 것이 병폐가 아닐 수 없어요. 처음부터 난초를 그린다든지 매화꽃을 그린다든지 해서 교재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대학수업에서도 전부 데생, 서양화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동양화를 배우라고 하니까 교육이 따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재가 동양화의 기초부터 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또 중국에는 중국화, 일본에 일본화가 있는데 왜 우리만 동양화라고 하는 것인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한국화라고 하자’라고 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시다.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나무들도 하나 하나 다 특징이 있고 또 소나무는 얼마나 고풍스러운지요. 이런 소재뿐만 아니라 초가지붕 밑에 연기 나는 시골풍경까지 한국의 긍지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스위스 부호가 한국적인 소재로 그림을 그려 달라 하여 내 작품 열두 점을 사갔었습니다. 한국적인 미가 외국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이렇듯 세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우리 소재를 갖고 우리 풍토에 맞게 화선지에 붓 다루는 방법부터 배워야 하는데 초등학교에서 물감으로 수채화 그림부터 그리

“어떤 것이든지 재료가 될 수 있고, 모티프를 만들어 갈 수도 있어요. 따로 찾는 게 아니에요 자연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도 대화를 하다가도 얼마든지 생각 속에 품어낼 수 있습니다.

다보니 동양화가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것을 살려서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나가야 해요.

《초보자를 위한 화조화-조류편》이란 책을 내셨는데, 초보자를 위한 교재로는 처음 발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판하게 된 계기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림을 그대로 보고 답습을 하는 것은 생각 없이 베끼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이론이 들어가야 해요. 날개의 각이 어떠하고 어떻게 움직여질 것인가 등등. 시리즈로 우선 참새학을 냈지만 벌, 나비 등을 다룬 교재를 2집, 3집으로 계속 출판하려고 합니다. 책 내용은 소재를 생동감 있게 그려내는 것에 중점을 두었어요. 산수화는 좀 잘못되면 거기에 나무 하나, 바위 하나 그리면 되지만 화조화는 대상이 하나만 잘못 움직여도 찢어 버려야 해요. 죽은 새라고 할지라도 참새가 움직이는 것처럼 역동적이어야 하는데 움직임이 없는, 혼이 없는 참새를 그리게 되는 거죠.

한중문화 교류전에도 참여하셔서 나라의 위상을 높이셨는데 이 전시회에 대한 소개도 간단히 해주십시오.

한중문화 교류전은 장대천(張大千, 1899~1983)의 화맥을 잇는 중국 화가 16인이 작품을 선보인 전시회입니다. 장대천이라는 분은 생전에 피카소와 그림을 주고받을 정도로 명화를 그린 중국에서 손꼽히는 화가예요. 장대천의 그림은 세계적인 명화입니다. 물과 먹의 만남, 번짐을 발묵(潑墨)이라 하는데 이 발묵의 대가예요. 작품 속에 장대천만의 대범한 화풍이 나타납니다. 장대천이 ‘대풍당(大風堂)’이라는 화파를 창립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이 뱃지가 대풍당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이걸 차면 대단한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대풍당 관장이 저에게 ‘화사’라고 명칭을 주었습니다. 장대천 화백의 계승자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지요. 이번 한중문화 교류전에는 한국인으로서 저 혼자 참여하였습니다. 국위선양을 위해서 태극기도 그려놓고 했어요.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전시회나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바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술은 끝이 없기에 끝없는 정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대천의 화맥을 잇는 ‘대풍당’이 있듯이 저의 제자들이 속해있는 ‘도우제(道優齊)’라고 있어요. 도우제가 이제 28년이 되어 갑니다. 도우제전을 9월에 인사동에서 할 예정이에요. 전시회를 통해서 내가 잘 가르쳤는지 되돌아볼 수도 있는 좋은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정리_ 조유란(성북문화원), 박은한(한성대학교 4학년)

전통 서예의 틀을 깨다 나현 이은설

나현 이은설 선생님은 한글, 한문, 전각 등에 회화적 방법을 도입한 작품으로 주목을 받으며 독창적인 서체를 사용하여 예술로 승화시키는 서예가로 정평이 나있다.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한국서예가협회 이사, 한국미술협회 회원, 월간 묵가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작품으로 다양한 실험적 시도를 하고 있는 서예가 이은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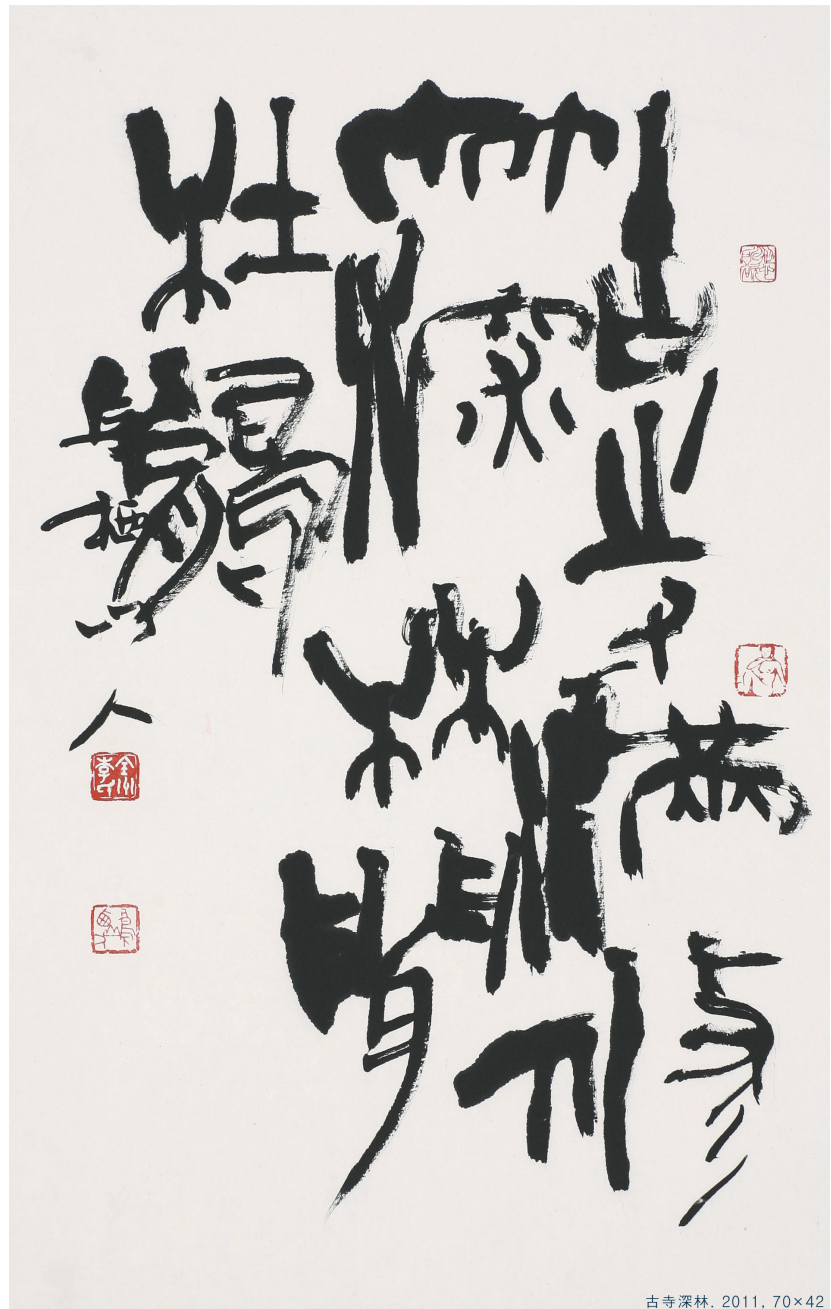
서예가가 되기 위해 처음 붓을 잡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이었나요?

고등학교 시절부터였을 겁니다. 처음에는 학창시절 취미로 시작했지요. 그러다 대학에서의 동아리활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전공하던 학문에 회의감을 느껴 서예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현’이란 호도 대학시절 서예를 좋아하시던 국문과 이훈종 교수님께서 출생지인 충남 보령군 ‘청라면(靑蘿面) 장현리(長峴里)’의 지명에서 청라면의 ‘라(蘿)’자와 장현리의 ‘현(峴)’자를 따서 지어주신 겁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서체를 사용해서 작품 활동하시기로 유명한데요. 서예의 다양한 서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문은 일반적으로 전서·예서·해서·행서·초서의 5체로 구분이 됩니다. 전서는 문자 발생 초기의 그림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서체로 회화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상하로 긴 자형입니다. 예서는 복잡한 전서를 단순화시켜 쓰기 쉽고 읽기 쉽도록 만든 서체로 약간 납작한 자형을 갖습니다. 해서는 우리가 정자라고 알고 있는 서체를 말하며, 행서와 초서는 흘려 쓴 글씨인데, 적게 흘려 쓴 글씨가 행서이고 많이 흘려 쓴 글씨가 초서입니다.

한글은 역사가 짧아 한문서체만큼 체계적으로 분류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분류방법상에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고체·궁체·오른체·민체 등으로 분류합니다. 고체는 사각형의 반듯한 형태의 서체를 말하며 지금의 활자로 보면 고딕체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지요. 궁체는 한글서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서체로 정자와 흘림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른체는 꼭 그렇게 볼 수



이은설 선생님의
2011년 작품 <고사심림>

古寺深林. 2011. 70×42

는 없지만 고체에서 궁체로 변화하는 과정의 과도기 서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민체는 궁체가 궁중에서 만들어져 사용된 것과는 상대적으로 민간에서 널리 쓰이던 글씨를 말하는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전통과 현대라는 양극단의 조화를 추구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작품을 시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품을 하실 때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작업을 하시는지요?

전통은 서예의 뿌리입니다. 따라서 튼튼하지 않은 뿌리에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은설 선생님의
전각 작품

로 전통 없는 서예란 있을 수가 없어요. 서예란 여기에 개인적인 감성을 넣어 자신만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한 과정에서 저는 여러 서체를 하나의 작품에 섞어본다든가 회화적인 요소를 가미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실험을 함께 해보고 있지요. 그것의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어떤 하나의 형태에 고정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에 평생 나 자신의 틀은 만들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이런 저런 실험을 해보는 것이지요. 저의 작품은 그러한 결과에 대한 실험 보고서라고나 할까요. 제 전공인 화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회의론을 많이 갖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학문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서예가로서 작품 활동도 하시고 성북문화원에서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병행하면서 활동하시기에 힘든 점은 없는지,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현재 우리의 서예계에는 작품만을 전문으로 하는 서예가는 존재하기 어려운 환경이지요. 따라서 다른 경제활동을 필요로 하는데, 강의를 하는 것은 다른 직업을 갖고 서예작업을 하는 것과 다르게 가르치면서 동시에 배우는 것이기도 하기에 작품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지금은 일반인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서예가라고 하면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를 연상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저도 나이가 들고, 또 나이 먹어 보이지만 과거에는 동안인 편이라 내게 ‘선생님 어디 계시냐’고 묻는 질문을 많이 받고는 했습니다.

지난 7월에 ‘한중서예명가십인전’을 개최하셨는데요.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고 어떻게 개최하게 된 것인가요?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 5명과 중국의 소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 5명이 모여 개최한 전시회입니다. 작년에 중국에서 첫 전시회를 가졌고, 올해에는 그에 대한 답례 형식으로 개최된 전시회입니다. 내년에는 다시 중국에서 전시회가 있을 예정이구요.

전시회는 중국 절강성 소흥에 있는 월수외국어대학 한국어과의 한글날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계기로, 그 지역의 작가들과 만남이 인연이 되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하신 다른 전시 일정이나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신가요?

(2014년) 11월 26일부터 인사동의 경인미술관에서 개인전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두 번째 전각전으로, 전각의 영역을 확대해 누드화와 접목하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제 생각이 언젠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늘 그래 왔듯이 어떤 목표를 이루어 대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 늘 그래 왔듯이 어떤 목표를 이루어 대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 보았습니다. 그 보다는 끊임없는 실험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작업을 통해, 뒤에 오는 작가들의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안 해보았습니다. 그 보다는 끊임없는 실험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작업을 통해, 뒤에 오는 작가들의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서예의 대중화를 위해서 힘써 오신 선생님의 경험으로 볼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술이 대중 속으로 들어가면서 예술성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현재 일부 작가들이 일상에 쓰이는 용품과의 접목을 시도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그게 대중 속에 쉽게 파고드는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게 대중과 친해지다 보면 대중들의 이해도 점차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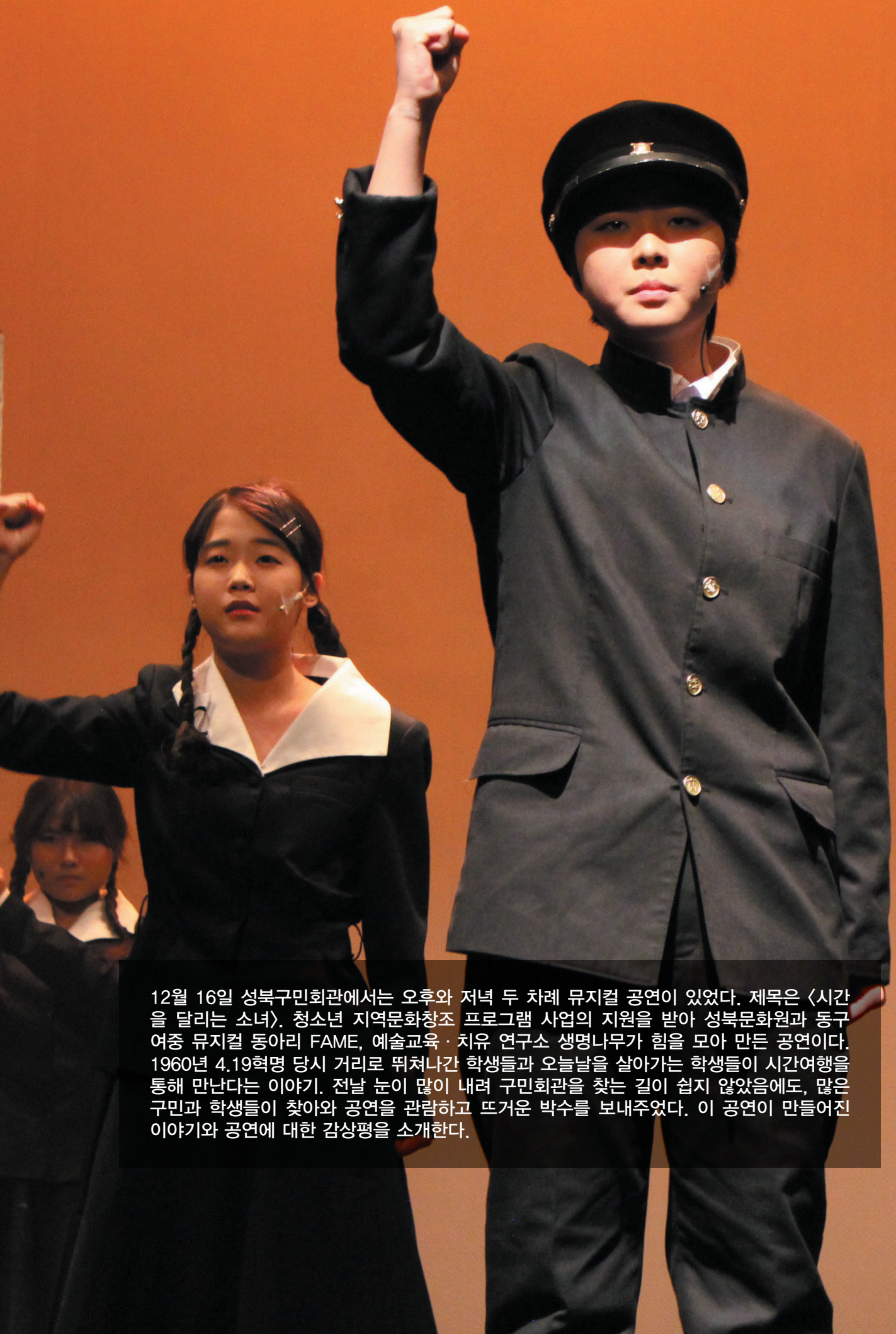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한문서예를 배워보고 싶은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현대가 만들어낸 기계문명은 사람들의 정서를 메마르게 하고 생활을 개인주의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병폐를 척결하고 잃어버린 삶의 여유를 찾아주는 것이 예술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예술 활동이 아닌가 합니다. 꼭 서예가 아니라도 어떤 장르든지 예술을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_ 김정현(성북문화원), 박은한(한성대학교 4학년)



성북문화원
원장실에서 만난
이은설 선생님



12월 16일 성북구민회관에서는 오후와 저녁 두 차례 뮤지컬 공연이 있었다. 제목은 〈시간을 달리는 소녀〉. 청소년 지역문화창조 프로그램 사업의 지원을 받아 성북문화원과 동구여중 뮤지컬 동아리 FAME, 예술교육·치유 연구소 생명나무가 힘을 모아 만든 공연이다. 1960년 4.19혁명 당시 거리로 뛰쳐나간 학생들과 오늘날을 살아가는 학생들이 시간여행을 통해 만난다는 이야기. 전날 눈이 많이 내려 구민회관을 찾는 길이 쉽지 않았음에도, 많은 구민과 학생들이 찾아와 공연을 관람하고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다. 이 공연이 만들어진 이야기와 공연에 대한 감상평을 소개한다.

창 · 작 · 무 · 지 · 컬

시간을 달리는 소녀



부모
했든,
그러나
행복
했든!

글 | 함형식
(예술교육 · 치유 연구소 생명나무 대표)



성북문화원 강당에서
연습 중인 학생들

“ 공연 시간이 1시간 50분이나 되어 일반 성인들도 하긴 힘든 장막극이
였지만 참여한 학생들의 눈물어린 노력과 헌신해주신 선생님 덕분에 공연
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19국립묘지에 가서 고 진영숙의 사진을 보는 FAME 동아리 학생들

공연을 끝내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내가 참 무리한 공연을 했구나 생각이 듭니다. 4.19라는 무겁고 어려운 주제를, 그것도 여중학생들과 무려 1시간 50분의 긴 공연 시간을 가진 작품을 만들어서 공연하다니.....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참 무모한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연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 공연을 보러 오신 많은 학생들, 선생님들, 지역주민들, 그리고 4.19 관련 관계자 분들도 모두 감동 받고 돌아가셨던 작품으로 남을 수 있었기에 참으로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있었던 것은 그 동안 작품을 준비해 온 과정이 녹록치 않았지만 함께 수고한 많은 분들과 학생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처음 제안 받은 것은 2013년 12월 청소년 문화창조 프로그램 ‘앞으로 빛날 나날’의 두 번째 작품이었던 ‘미아리 고개’를 소재로 한 ‘약속’작품을 끝낸 뒤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성북구에 살았던 여러 유명한 인물들을 추천 받았으나 중학생들이 그것도 여자 중학생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고민하던 차에 성북문화원에서 발굴한 지역 인물 중 4.19 당시 성북구 주민으로서 한성여중에 재학 중이었던 ‘진영숙’학생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 학생들이 극으로 만들어 가기에 그나마 가장 적합한 것 같아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작품 창작은 4월부터 시작했고 학생들의 교육과 연습은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창작 작업이라는 것이 쉽사리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작업인데, 처음에 같은 나이 또래 여학생이라 쉽게

진행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이야기가 ‘4.19’라는 역사적 주제와 맞물리고 ‘진영숙’이라는 실존 여학생의 희생이 담겨진 내용을 54년이 지난 지금, 요즘 학생들의 시각에서 풀어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뒤져보고 영상자료 등을 뒤져보면서 어떻게 하면 2014년을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다가 올 수 있으면서도 4.19의 역사적 사건을 무리 없이 전달 할 수 있는가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창작하는 내내 작품을 써가는 저에게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었고, 더욱이 작품을 쓰면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작품을 직접 무대에서 소화 해내야 하는 학생들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 역시 이번 작업의 고단함을 더해 주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한 장의 대본을 ‘쓰다, 지우다’를 몇 번이나 반복하는 지루하고 어려운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지나고서야 작품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품이 예상했던 일정보다 늦게 나와서 연습하는 과정 역시 만만치 않은 수고들이 더해졌습니다.

더욱이 작품을 공연하는 것이 여학교 중학생들이라 보니 생각보다 연습하는 데 많은 시간을 낼 수가 없었고 등장인물들 가운데는 여학생들이 하긴 힘든 남학생 역이나 4.19 당시 정치 깡패들 같은 역할 또한 극을 만들어가는 데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연 시간이 1시간 50분이나 되어 일반 성인들도 하긴 힘든 장막극이었지만 참여한 학생들의 눈물어린 노력과 헌신해주신 선생님 덕분에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품쓰고, 연습하고…….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 시간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기에 어떤 순간은 도망치고 싶었던 때도 있었지만 모두가 함께 수고하였기에 지금은 웃으며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글을 쓰며 학생 창작뮤지컬 공연 ‘시간을 달리는 소녀’를 되돌아보며 공연이 끝나던 그 순간 학생들과 함께 누렸던 감동을 다시 느껴봅니다.

공연을 마친 후 기념촬영





뮤지컬의 한 장면

창작뮤지컬 《시간을 달리는 소녀》_ 관람후기

네^이름으로 달리는 뮤지컬이 될 수 있도록

글_김주미
(前 경기도문화재전문위원, 성북문화원 '역사와 문화 유산'강의)





뮤지컬을 관람하기 위해 입장하는 학생들

12월 16일 성북구민회관 대강당에서 동구여자중학교 뮤지컬 동아리 FAME(페임)이 꾸민 창작 뮤지컬 ‘시간을 달리는 소녀’가 무대에 올라 당일 오후 2시와 오후 6시에 2회 공연되었다.

4.19 혁명을 주제로 한 ‘시간을 달리는 소녀’는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통해 4.19의 역사적 사실과 그 의미를 학생들이 접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연을 넘어 살아 숨 쉬는 교육의 장(場)이 되기도 했다.

뮤지컬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4.19를 주제로 한 공연을 준비하던 동구여중 뮤지컬 동아리 일원들은 공연에 도움을 얻기 위해 4.19 국립묘지로 현장 학습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조별 연극 과제가 부여된다. 그동안 4.19라는 무거운 주제를 작품으로 다루는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주현, 은혜, 연주, 주희는 연습을 하지 않겠다고 투덜댄다. 그러던 중 이들 4명은 시간의 블랙홀로 빨려들어가 부정선거가 치러졌던 1960년 3월 15일의 과거로 가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구여중 뮤지컬 동아리 일원인 희진을 닮은 영숙과 학생 시위를 주도하는 태웅이라는 오빠를 만나게 된다.

3.15 부정선거에 대한 파장은 중·고등학생들을 선두로 하여 제기·확산되고 과거에서 만난 태웅과 영숙은 4.19 혁명에 참여하게 된다. 21세기(2014년)에서 온 주현 등 4명의 학생은 4.19 혁명의 결과를 알고 있기에 이에 참여하려는 태웅과 영숙을 만류하지만 이 둘은 역사의 잘못을 방관할 수 없다며 4.19 혁명에 참가하여 꽃다운 인생을 마무리한다. 1960년 과거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온 주현, 은혜, 연주, 주희는 4.19 국립묘지에서 영숙의 이름을 확인하면서 4.19의 교훈을 되새기며 다시금 공연 준비에 매진한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는 시간여행을 통해 4.19 혁명이란 역사적 실체를 학생들이 만나고 느끼는 과정을 잘 그려내고 있다. 중학생들이 꾸민 무대였지만 극의 완성도도 높았고, 태웅 학생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부정선거에 반대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장렬히 생(生)을 마감하는 장면은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더욱이 극중에 등장하는 ‘영숙’은 당시 성북구에 소재한 중학교에 다녔고 또한 4.19 혁명에 참여하여 희생된 학생과 같은 이름이어서 공연의 실재성과 현장성이 강하게 느껴졌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는 성북문화원이 기획한 지역문화 창조 프로그램으로 2012년 ‘한용운’, 2013년 ‘미아리고개’에 이어 세 번째로 기획되었던 창작극이다. 이들 창작극은 청소년의 시각으로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것을 공연으로 기획하여 무대에 올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처럼 뜻 깊은 의미를 지니며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무대에 올린 ‘시간을 달리는 소녀’와 같은 창작극이 여러 상황적 제약으로 인해 당일 하루 2회 공연으로 막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한편의 창작 뮤지컬을 통해 학생과 일반인이 4.19 혁명의 배경과 과정을 쉽게 인지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더듬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2회 공연에 그친 현 상황에 대해 향후 무언가의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학생과 일반인이 우리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 ‘시간을 달리는 소녀’와 같은 창작극이 중·고등학교나 각 지역의 구민회관 등을 통해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역사와 친숙해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학생부 등에 공연 관련 내용을 다루어 준다면 창작극에 참여한 학생들의 동기 부여는 물론 향후 진로 모색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극적인 재미와 역사적 교훈을 함께 줄 수 있는 ‘시간을 달리는 소녀’와 같은 창작극이 경제적 이유를 내세운 주변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사장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이러한 공연물을 기획하고 무대에 올린 여러 선생님과 관계자, 학생들의 노고를 생각한다면 단발성으로 공연을 마무리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 더 클지도 모른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연의 기회를 좀 더 늘리고자 마음을 모은다면 분명 길은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열정과 노력이 시너지가 되어 앞으로 완성도 높고 좋은 창작극이 계속하여 무대에 올려 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시는 성북문화원을 응원하며 이 같은 바람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더 힘써 주시길 부탁해마지 않는다.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통해 4.19의 역사적 사실과 그 의미를 학생들이 접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연을 넘어 살아 숨 쉬는 교육의 장(場)이 되기도 했다.

2014 역사문화탐방 답사기_강화도

텅 빈 유적의 아우성

글 | 이승준(한성대학교 4학년)

강화 성공회성당을
둘러보는 회원들





고인돌에 대해
설명하는 강성봉 사무국장

이른 아침 답사를 떠나기 위해 성북문화원으로 향하는 내 마음은, 소풍을 떠나는 초등학생처럼 마냥 두근거렸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문화유적 답사를 좋아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지는 휴양지보다, 조상들의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문화유적지가 더 좋았다. 같은 시대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조금이나마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두근거리는 일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강화도는 서울 중심에서 차로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서울의 젓줄인 한강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 중요성이 얼마나 큰 곳인지 이루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

강화대교를 건너자마자 왼편에 자리하고 있는 갑곶돈대가 이번 탐방의 첫 번째 목적지였다. 갑곶돈은 고려가 몽고와의 전쟁에서 도읍을 강화도로 옮긴 후, 항전하던 중요 요새의 하나이다. 또한 조선 숙종 5년(1679)에는, 이곳에 돈대를 만들어 바다를 통해 침입하는 왜적을 방어하기도 했다. 고려시대 민족이 말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강화도는 최후의 보루였다. 마찬가지로 조선시대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양선들로부터, 한양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였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그렇기에 이곳을 지키는 병사들은 얼마나 용감했고, 또 한편으로 얼마나 두려웠을까? 오늘날 따스한 햇살을 느끼며, 이곳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선조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선조들의 피땀 어린 갑곶돈대를 떠나 고려궁지에 닿았다. 고려궁지는 몽골의 침략으로 도읍을 강화도로 옮겼을 때, 사용되던 곳이다. 몽골과의 강화 성립이후, 궁궐과 성곽은 모두 철거됐다. 오늘날에는 조선



외규장각 터에서
기념촬영

시대 강화유수부 동헌과 이방청 건물이 남아있는데, 이곳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외규장각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외규장각은 왕실 서적의 안전한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이곳에 있던 외규장각 의궤가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에 약탈당한 것이다. 외규장각 의궤는 145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병인양요 당시 불타버린 건물들은 복원되지 않았다. 병인양요 당시 조선의 병사들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하에 전력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싸웠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쓸쓸한 마음이 들었다. 건물 터로 추정되는 텅 빈 공터의 허전함이 이를 더하는 것만 같았다.



외규장각 터에서
박수진
향토사 연구팀장의
해설에 귀기울이고
있는 회원들



계룡산 김차 부도

2014 역사문화탐방 답사기_충남 공주

지혜와 감사의 마음

글 | 김해순(사군자반·한국무용반)

儉而不陋, 華而不侈.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았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이 글귀가 나를 사로잡았다. 사치와 허황에 들떠 있는 요즘 세상에서 이런 글귀를 찾아 앞장에 크게 써붙인 탐방 책자를 받게 되어 정말 감사했다.

탐방하는 날 새벽, 문화원에 도착한 회원들은 두 대의 버스에 나누어서 탔다. 모든 회원들, 문화원 선생님들과 함께 오늘도 무사히 잘 다녀오기를 빌고 있으려니 금세 차는 부웅 하고 떠난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우리 문화원 앞을 지키고 있는 은행나무의 잎이 샛노랑고, 스쳐가는 가로수들이 울긋불긋하다. 시내를 빠져나와 창밖의 가을 산을 보자니 눈도 운동이 되어 바쁘게 움직였다. 저 멀리 단풍산은 한 폭의 병풍이 되고 벼 베고 남은 논에 짙다발이 하얀 보물처럼 놓여 있다. 엇그제만 해도 우리 국민을 먹



계룡산 갑사 입구에서
기념촬영

여 살리느라 푸르스름한 눈이었는데, 벌써 누런 버를 저렇게 타작을 다 했구나 하고 또 고마운 마음. 이래 저래 고마움뿐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국립공주박물관에 도착. 두 조로 갈라져서 전시된 유물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하나라도 놓칠세라 강성봉 사무국장님, 박수진 선생님께 해설을 들으려는 우리 문화원생들을 보면서 역시 다른 곳과는 다르구나 하고 생각했다.

국립공주박물관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국보급 유물들을 모아놓고 전시하는 곳이라 한다. 금제관, 금제뒤꽂이, 거울, 귀걸이와 발받침, 무령왕릉을 본떠서 만든 모형들을 보면서 어쩔 그렇게 아름답고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는지, 옛 백제인들의 마음씨도 저와 같지 않았을까 짐작해 보았다.

무령왕릉 전시관에 들어서 널방 벽면의 등잔 받침이 탐스러운 복숭아 모양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니 세상에 이런 곳이 다 있었나 싶었다. 우리 동네에서 윤종철 선생님과 역사탐방도 많이 다녔지만 여기는 처음 와 보았던 것이다. 전시관을 빠져나와 저 멀리 언덕에 누렁 모과가 나무에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을 보기도 하면서 조용하고 넓은 능원을 회원들과 함께 걸었다.

점심은 공주한옥마을에 가서 한우국밥을 먹었다. 식당에서 나오니 문화원 직원들이 행어나 문화원생



무령왕릉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강성봉 사무국장

들 식사 못하신 분이 계신지 살펴주신다. 다른 관광 가면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주지 않을 텐데……. 이래서 성북문화원 탐방 간다고 하면 빠지질 않고 따라나선다.

갑사로 간다. 강성봉 국장님은 오늘도 마이크를 잡고 자세한 문화원 실상을 얘기하시면서 후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를 꾸려가느라 늘 걱정하고 노력하시는 국장님이 안쓰러웠다. 앞으로 조금씩이나마 힘을 보태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 후원금이 다 우리를 위해서 쓰이겠지 하고.

차에 내려 저 멀리 웅장한 산세를 보니 아~아~ 여기가 계룡산이구나 하고 입이 크게 벌어진다. 갑사 일주문에 들어서니 내려오고, 올라가는 울긋불긋한 인간 꽃들과 길 양편의 단풍나무, 느티나무, 도토리나무들이 자리 잡고 우리를 맞이한다. 한 잎, 두 잎 떨어지면서 반겨주는 것 같아 기쁘고 또 고마웠다. 대웅전에 들른 후에 절 옆으로 흐르는 개울로 나가보았다. 물 흐르는 소리가 우리들에게 ‘오늘 나들이 나오셨는 교’하는 인사 소리처럼 들린다. 그 위에는 단풍잎이 떨어져 한 개가 두 개로 보이고, 출렁대는 나뭇잎이 물 한 모금씩 적셔서 가면서 사랑을 나눈 것 같이 보인다. 아름답다.

내려오면서 회원들하고 뭘 좀 사서 먹어보려고 했으나 마땅치 않아 추워도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드리고 싸 가져온 꽃감과 형님이 싸오신 것을 먹으며 동심으로 돌아가서 따뜻한 가을 햇님을 맞이하여 놓고 있었다. 내려오라는 다른 형님 아우로부터 전화가 와서 갔더니, 도토리묵에 막걸리와 파전에 친목 도모도 되고 한 점씩 먹는 맛은 꿀맛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쳐다보고 찾아봐도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 분들을 못 만나서 아쉬움이 컸다. 같이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 뿐이었다. 내려오는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께서 “이것 사세요, 좋으니까 사가세요”하는데 그냥 와서 미안도 하였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한지.

일주일에 두 번을 문화원에 가지만 차 때문에 힘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또 그런 상황을 몇 번이고 목격했다. 언제 문화원이 새로 탄생하여 지려는지……. 10년 전에 했던 말이 있다. 우리가 새로 문화원을 지어가지고 수업할 때가 올까? 소원이라면 새로 지은 문화원에서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렇게 잊지 못할 2014년 가을 탐방을 통해 역사공부를 하고,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신 성북문화원에 감사를 전한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유산 강사 김주미 선생님의 즉석 미니 강의



2014년도 외부 경연대회 수상 회원

올해에도 성북문화원 회원들은 외부에서 치러지는 경연대회에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다. 그 결과 모두 19명 1팀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가운데에는 문화강좌를 통해 자신의 숨은 재능을 발견하여 제 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특히 많았다.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그 열정과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2014 서울문화가족 서예·사군자 경연대회 심사 광경

강좌명	성명	수상 내역
문예창작실기	강명화	2014년 1월 (사)한국소설가협회 기관지 월간 『한국소설』 신인상 당선으로 문단 데뷔
	심희진	계간 문예잡지 『참여문학(가을호)』 신인상 소설부문 당선으로 문단 데뷔
	이미숙	계간 문예잡지 『참여문학(가을호)』 신인상 수필부문 당선으로 문단 데뷔
한문서예	문병각	2014 향토문화미술대전 은상
	박영옥	제 4회 문경새재 휘호대회 우수상 제 1회 전국휘호대회(예천문화원) 장려상 제 17회 김삿갓휘호대회 차하 2014 서울문화가족 서예·사군자 경연대회 서예부문 금상 제 23회 대한민국현대서예문화대전 대상 제 3회 명인미술대전 특별상
	박성희	제 33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제 50회 경기미술대전 특선 제 17회 신사임당 이울곡서예대전 특선 제 6회 대한민국 다산서예대전 특선 제 3회 명인미술대전 삼채상 제 2회 전국 회현선생 휘호대회 특선 제 1회 전국휘호대회(예천문화원) 특선
	손민순	경기도 미술대전 입선 제 5회 성북천 깃발전 '먹내음 가득한 성북천' 한글서예 부문 최우수상
	지정순	2014 만해서예대전 특선 2014. 08.12 님의 침묵 서예대전 초대 작가 인정 (강원도민일보사)
사군자	백예선	2014 서울문화가족 서예, 사군자 경연대회 사군자 부문 은상 세계평화대전 17회 최우수상
	채명창	제53회 대현울곡이선생제경축 전국휘호대회 장원상
한국무용	한국무용반	2014 서울문화가족 국악 및 무용 경연대회 장려상
유화로 그리는 인물화	조희선	한국회화의 위상전 우수상
선소리산타령	오근창	제11회 전국 시조·가사·가곡 경창대회 짚음시조부 금상
	안영호	제2회 부천전국국악경연대회 일반부 대상 수상
	김유섭	제2회 인천전국국악경연대회 신인부 동상 수상 육군삼사관 성북구 경연대회 1등 수상
청소년 사생대회	김상엽(돈암초5)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주최 2014 청소년 사생대회 은상
	권수민(혜화초2)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주최 2014 청소년 사생대회 장려상
	길보경(삼선초5)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주최 2014 청소년 사생대회 장려상
	김상훈(돈암초2)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주최 2014 청소년 사생대회 장려상
	김태윤(돈암초6)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주최 2014 청소년 사생대회 장려상

나는 이렇게 점음을 실현한다

글 | 오근창(선소리산타령반, 제11회 전국 시조·가사·가곡 경창대회에서 질음시조부 금상 수상)



전국 시조·가사·가곡 경창대회 참가 장면

“ 선소리산타령을 배우면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지고 정신이 맑아진다. 전신에서 건강의 새 바람이 불어 나온다. 온 몸에서 최고급 향기가 발산된다. 그러므로 아름답다는 젊음의 향기가 항상 옆에 함께할 수밖에 없다.

활기 넘치는 선소리산타령과 시조창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젊게 살려는 것이 본능이다. 옷을 젊게 입고 얼굴 주름살을 없애고 반듯한 걸음을 걷고 싶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음식을 먹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등 온갖 조언이 귓전을 두들긴다. 그리고 젊게 사는 방법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취미생활에서 생겨난다고 열심히 설파한다. 그렇다. 그러나 필자의 취미생활은 좀 남달랐다. 왜냐하면 10년 전부터 일반인이 잘 접근하지 않는 국악 중에 “선소리산타령과 시조창”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선소리산타령이나 시조창은 우리나라 민족혼이 담겨 있는 고유의 전통 음악이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 마치 생소한 음악처럼 뒤져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몸에서 젊음의 향기 나와

성북문화원 선소리산타령반에 입문하면 가장 먼저 소리 내는 방법을 익힌다. 다음엔 호흡법을 배우고 가사를 외우고 박자를 맞춘다. 복식호흡을 통해 아랫배에서 불어 나오는 소리 공부를 연마한다. 고저장단에 맞춰 소리의 음률을 조정한다. 이 모든 것을 목소리 하나로 전수받는 순간 얼마나 많은 즐거움이 뒤 따르는지 모른다.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각기 독창하는 경우가 많다. 그때마다 “아! 나도 명창(?)이다”라는 자부심이 스며든다. 그리고 그 것은 금방 쾌감으로 이어진다.

선소리산타령을 애창하면 세상의 잡다한 생각이 다 지워진다. 명창의 독창소리를 들을 때는 더욱 그렇다. 천상의 소리처럼 들리는 선생님의 창을 경청할 때에는 더할 나위 없이 깊은 감동에 빠진다. 선소리산타령은 집에서든 길을 걸을 때도 전철을 타고 갈 때도 언제 어디서나 시간만 되면 낮은 소리로 부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창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즐거움뿐이다. 부질없는 세상일에 걱정할 시간이 없다. 필자의 경우도 이 사실 하나만으로 건강 효과 만점임을 자부한다.

질병없는 즐거운 인생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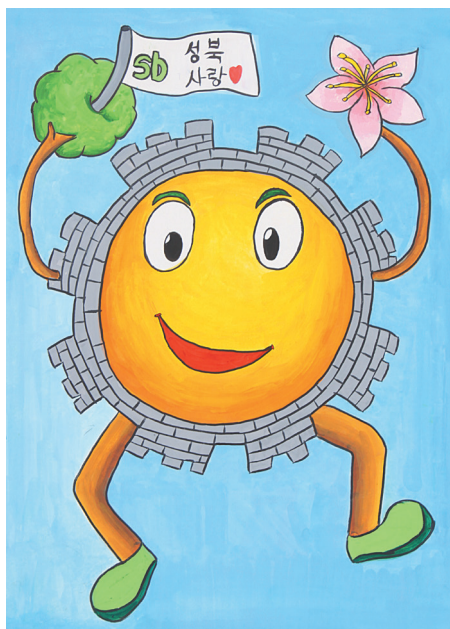
선소리산타령을 배우면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지고 정신이 맑아진다. 전신에서 건강의 새 바람이 불어 나온다. 온 몸에서 최고급 향기가 발산된다. 그러므로 아름답다는 젊음의 향기가 항상 옆에 함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창을 애창하면 심폐기능이 강화되고 소화력이 증강된다. 자신의 맑은 목소리를 자신이 들을 때 수많은 엔돌핀이 생성되어, 항상 웃고 살아가는 여유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선소리산타령을 배운다면 마지막엔 모든 질병을 퇴치하는 새로운 인생이 전개된다고 생각한다.

2014년도 성북천 깃발전 수상작

성북천 깃발전이 올해로 5회 째를 맞았다. 이제 봄, 가을로 성북천변에 예쁜 깃발들이 날리는 것은 예사스러운 풍경이 되었다. 구민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봄에 열린 '팔랑거리는 상상전'에 응모한 작품은 180점, 가을에 열린 '먹내음 가득한 성북천'에는 135점의 작품을 보내주었다. 기발한 상상과 무르익은 기교가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았다. 뜨거운 성원을 보내준 우리 구의 어린 꿈나무들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를 전한다.

성북천 팔랑거리는 상상전

주제 : 성북구를 상징하는 캐릭터 그리기



대상
김태윤(돈암초 6)
제목 : 성북을 대표하는 성북이



최우수상
김민균(석계초 4)
제목 : 성곽이와 하천이는 친한친구



최우수상
최정우(석계초 1)
제목 : 성북을 소개해요



우수상
김나영(석계초 3)
제목 : 성북삼충사(감이, 분이 참이)



우수상
송세현(정릉초 6)
제목 : 성현이



우수상
한유빈(돈암초 6)
제목 : 아침을 깨우는 희망의 성북



가작
김온아(돈암초 4)
제목: 살기 좋은 성북



가작
남수영(석계초 2)
제목: 맑은 성북천, 풍성한 감, 신나는 성북



가작
이지윤(석계초 3)
제목: 꿈과 희망이 넘치는 성북



가작
한유민(석계초 2)
제목: 뽕내는 감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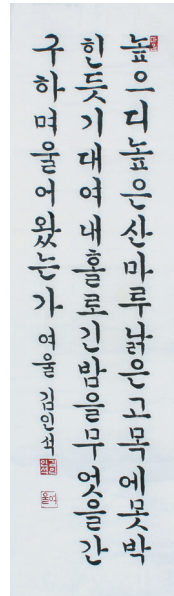
먹내음 가득한 성북천

주제 : 성북구 문인 작품 글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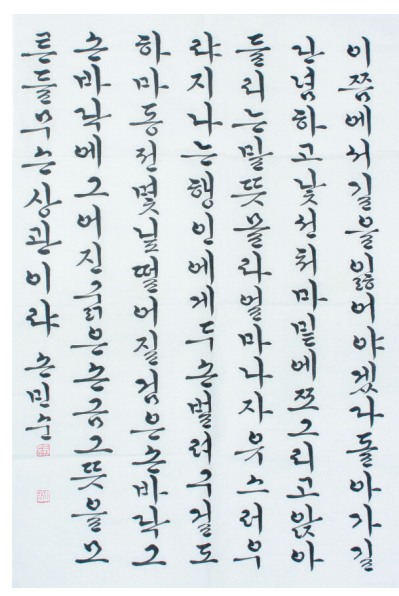
[한글서예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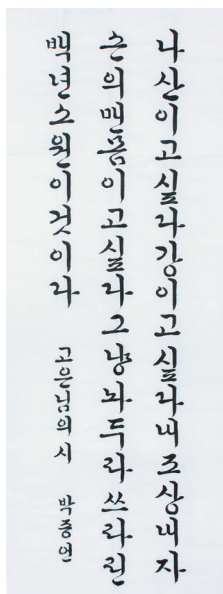
대상
황경옥
조지훈 - 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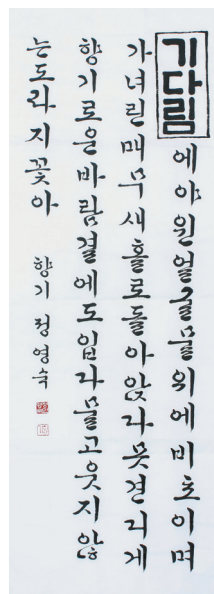
최우수상
김인석
조지훈 - 산상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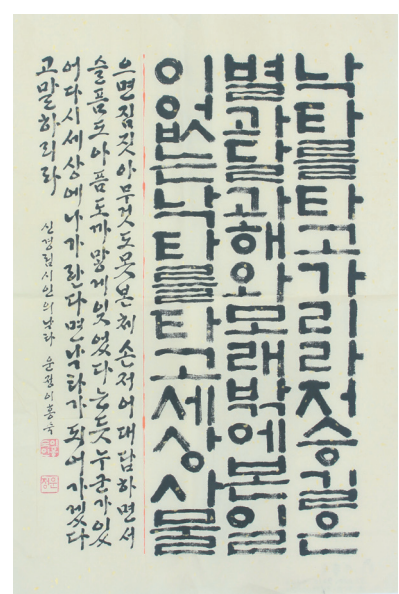
최우수상
손민순
신경림 - 내가 살고 싶은 땅에 가서



우수상
박종언
고은 - 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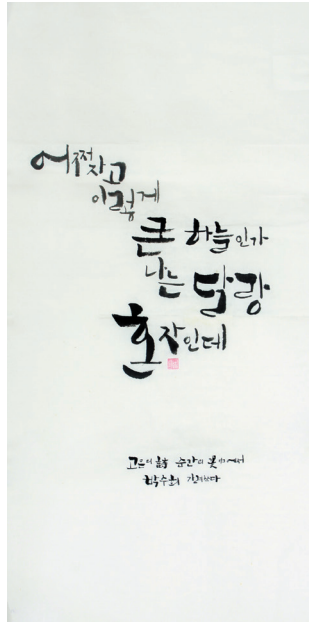


우수상
정영숙
조지훈 - 도라지 꽃



우수상
이홍숙
신경림 - 낙타

[캘리그래피 부문]



대상
박수희
고은 - 순간의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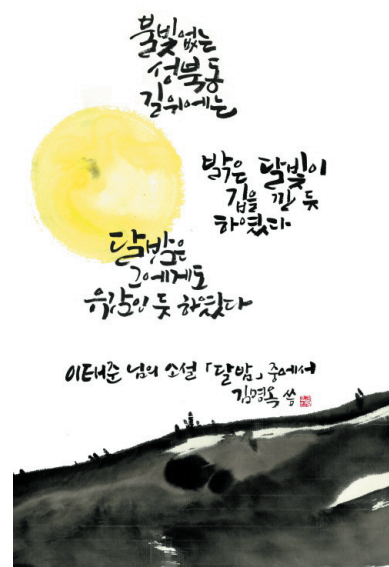
최우수상
김영민
고은 - 그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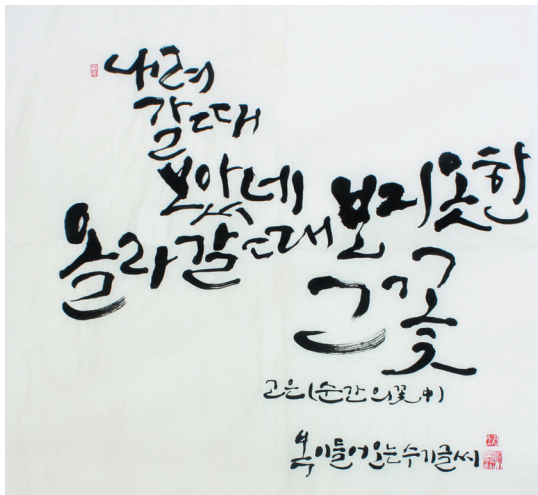
빛은 갇혀있다
아름답고 차분
나와 너는 갇혀있다
푸른 하늘을 개척
단풍나무 숲은 향하여
난 너를 기원할 때
그 열기로 갇혀있다

최우수상의 별리행복 안에서
김종인 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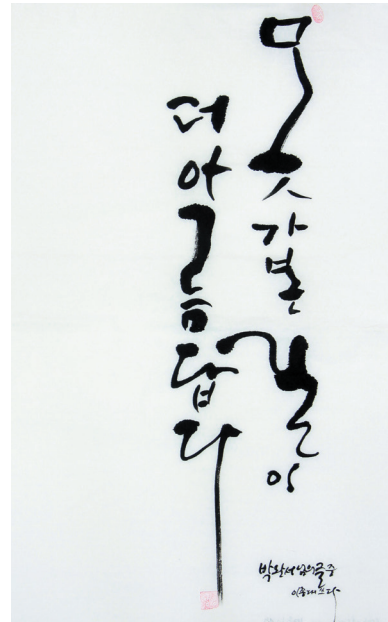
최우수상
김종인
한용운 - 너의 침묵



우수상
김명옥
이태준 - 달밤



우수상
송숙
고은 - 그 꽃



우수상
이종대
박완서 - 못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사진으로 보는 2014년 성북문화원의 활동과 성과

2014년 성북문화원은 지역문화의 발전과 구민 문화생활의 동반자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각종 강좌와 행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직원 수가 적은데 비해 여러 일을 하다보니 많은 어려움도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문화원 회원님들과 구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무사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 모든 것을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지나온 길을 사진으로 기록, 정리하였습니다. 천천히 넘기시면서 봐주세요.



시설개선



옥상녹화사업(10.20 완료)





문화강좌

성인 강좌(24개)

경기민요, 규방공예, 기초소묘에서 유화까지, 대금·단소, 동화구연가 양성과정, 문예창작실기, 사군자A, 사군자B, 선소리산타령, 수묵산수화A, 수묵산수화B, 스포츠댄스, 시낭송가 양성과정, 원어민영어회화(초급), 원어민영어회화(중급), 원어민영어회화(고급), 유화로 그리는 인물화, 장구, 한국무용(초·중급), 한국무용(심화), 한국의 역사와 문화유산, 한글서예, 한문서예A, 한문서예B

엄마랑아기랑 강좌(7개)

오감발달놀이1, 오감발달놀이2, 오감발달놀이3, 오감발달놀이4, 뮤직플레이1, 뮤직플레이2, 뮤직플레이3

어린이 강좌(6개)

원어민영어회화(기초), 원어민영어회화(초급), 원어민영어회화(중급), 원어민영어회화(고급), 유아발레A, 유아발레B



어린이 원어민영어회화



뮤직플레이 강좌



장구 강좌



기초소묘에서 유화까지



규방공예



한국무용



향토문화 계승 및 문화탐방 사업



만해 한용운 70주기 추모 학술회의 <만해의 심우장 시대(1933~1944)> (6.28)



만해 한용운 선생 입적 70주기 추모제 (6.28~29)





만해 한용운 선생 입적 70주기 다례봉행 (6.29)



성북문화원 역사문화탐방 (6월~11월)



성북 문화 아카데미 (3.26~3.28)



청소년지역문화창조프로그램 <시간을 달리는 소녀> (5.7~12.16)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예절교실 (12.29)



지역문화축제 및 문화행사



성북천 팔랑거리는 상상전 (6.10~7.10)



먹내음 가득한 성북천 (10.1~10.31)



성북문화가족 어울마당 축제 <풍류 한마당> 공연마당 (10.18)



서울 어르신 문화축제 <나이 없는 날> (11.19)

경연대회 참가



서울문화가족 서예 · 사군자 경연대회 (5.22)



서울시문화원연합회 청소년 사생대회 (10.4)



서울문화가족 국악 · 무용 경연대회 (9.12)



지역문화복지실현 사업



다문화 화합 프로그램 <우리는 초록별 친구> (5.1~10.31)



글로벌 문화체험 프로그램 <너나들이> (3.3~12.31)



나눔이 있는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희희낙락 (4.4~10.17)



성북복지&봉사한마당 (10.12)



외부공모사업



문화재청 <문화유산 방문교육> (2월~11월)



성북구 <지역사회 교육컨텐츠 연계사업>
(7월~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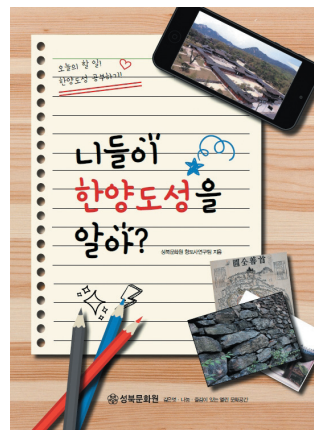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동아리 활성화사업 <스포츠댄스 동아리 Dancing with the Silverstars> (5.1~10.23)



서울시 매력명소 스토리텔링사업 <서울 속 마을여행> (5월~12월)





문화체육관광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5월~12월)



문화재청 <문화재지역 주민공감정책 사업> (5월~12월)



성북구 2014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사업 <성북구 역사 리더십 캠프>(11.12~11.13)



외부기관과 산학협력협약서 체결



사회복지법인 우리누리와 협약서 체결(2013.8.1)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와 산학협약서 체결 (12.2)



언론에 비친 성북문화원

방송

강성봉 사무국장, 심우장에서 현장대담



C&M 케이블방송 <씨앤엠 현장대담> (3.20)

만해 스님을 소재로 한 뮤지컬 <심우>



불교TV 뉴스 (6.16)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우리는 초록별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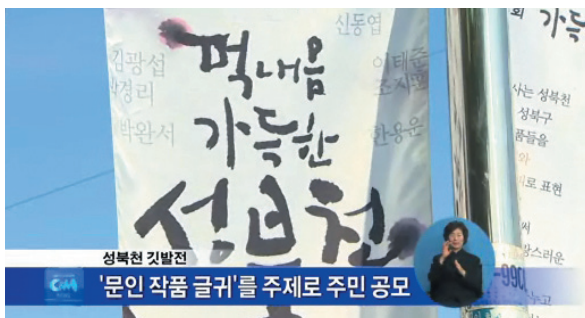
성북마을방송 와보송 (8.18)

성북구 역사문화탐방



SBS 예능프로그램 룸메이트 시즌2 (10.5)

성북천 깃발전 <먹내음 가득한 성북천>



C&M 케이블방송 뉴스 현장인터뷰 (10.8)

뮤지컬 '시간을 달리는 소녀'



C&M 케이블방송 뉴스 (12.17)

학술회의 <만해의 심우장 시대>



불교TV 뉴스 (6.30)

만해 한용운 선생 입적 70주기 추모예술제



불교TV 뉴스 (6.30)

인터넷 신문

날짜	신문	제목
5.4	불교신문	세상과 소통하고 대중에게 희망주는 수행자상
5.28	불교닷컴	선학원 만해스님 70주기 학술회의·추모제·음악회
5.30	연합뉴스	성북동 심우장에서 만해 서거 70주기 추모행사
5.30	아시아경제	만해 한용운 선생 만나러 성북동 심우장 가자
5.30	서울시정일보	6월엔 만해한용운 만나러 성북동으로 가자
5.30	서울뉴스통신	6월엔 만해한용운 만나러 성북동으로 가자
6.1	시민일보	뮤지컬·다례 등 만해의 삶 재조명
6.1	천지일보	[서울·성북구] 6월엔 만해 한용운 만나러 가자
6.3	서울신문	만해열반70주기기념행사다양
6.12	불교신문	만해 한용운 스님 입적 70주기 학술대회
6.12	법보신문	성북문화원, ‘만해 심우장 시대’학술대회
6.28	불교저널	만해스님 삶 감동 “울컥했다”
6.29	불교저널	‘만해의심우장시대’주제 학술대회
6.29	불교닷컴	“민족의벗만해여,다시이끌어주소서”
6.29	불교저널	심우장서 만해스님 70주기 다례재
10.6	시민일보	가을 나들이는 묵향 그윽한 성북구로
10.6	전국매일신문	제5회 2014 성북천 깃발전
10.10	인사이드케이بل	성북천, 먹내음 가득한 깃발전
12.10	뉴스타운	성북문화원, 청소년 뮤지컬 ‘시간을 달리는 소녀’ 재탄생

2014년 성북문화원 임원명단

원장

조태권 (주)광주요 그룹 회장

부원장

이면영 학교법인 홍익학원 이사장
정근호 라이프어패럴 (주)리더무역 회장

감사

서영수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회 의장
권기중 한성대 역사문화학부 교수

이사

정미숙 한국가구박물관 관장
정상옥 전 동방대학원대학교 총장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
김영일 (주)태명실업 회장
이병한 새종암 새마을금고 이사장
김영대 대성그룹 회장
김예환 예일디자인고등학교장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
김기병 (주)롯데관광개발 회장
정하경 한성대학교 명예교수
노태섭 경상문화재연구원 이사장

역대원장

1대 원장 故 구두희 전 (주)에스코 회장
2대 원장 천신일 (주)세중그룹 회장

운영위원

강석원	대한건축가협회장
서세옥	전 서울대학교 미대학장
전성우	간송미술관 관장
최만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고문

김성배	한진관광 부회장
김영준	성신웹진 회장
마상곤	(주)협운해운 회장
박창호	(주)템피스트투자자문 회장
박태호	원제한의원 원장
양창갑	(주)서흥실업 명예회장
이병무	(주)아세아시멘트 회장
이운재	(주)피죤 회장
이의순	(주)세방그룹 회장
장치혁	고려학술문화재단 명예회장
정승소	(주)동승 회장
조양래	(주)한국타이어 회장
허남각	(주)삼영통상 회장
허완구	(주)승산 회장
김해용	(주)삼미산업 회장

명예고문

윤덕병	(주)한국야쿠르트 회장
양대길	(주)영우통상 회장

2014년 성북문화원을 후원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개인

김주미, 김해순, 박병호, 위가야, 이강한, 이건자, 이길재, 이태화, 장혜정, 최우석, 최종진, 한동현

기관 · 단체

재단법인 선학원, 대한불교조계종, 도선사, 협동조합 성북동의 아름다운 사람들, 한글서예반, 학연문화사

후원은 나와 문화를 키우는 또 하나의 참여입니다

성북문화원은 우리 고유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여 문화교육과 문화복지를 위해 다양한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성북문화원은 성북을 대표하는 비영리 법인의 문화기관으로 확실하고 신뢰성 있는 문화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 문화원에 후원한 기업 및 개인에게 투명한 정기적인 기금 사용을 보고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관리에 노력합니다.
- 성북구민의 전통문화를 적극 수용하여, 고유문화의 정체성을 깨닫고 체험하여, 우리지역의 동질의식과 소속감을 고양하여 지역 문화를 아끼고 보존하는데 참여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랑스런 성북 문화예술 발전에 동참할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은 소중히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후원 방법

• 일반후원

성북문화원의 모든 사업에 후원하면서, 우선적으로 도움이 시급한 문화복지사업에 지원합니다.

• 물품후원

후원하신 물품은 문화원 지역축제 행사 및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와 문화교육의 기회확대에 소중히 사용됩니다.

•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언제든지 문화원 행사와 문화복지 및 교육에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후원금으로 후원하는 방법

• 일반후원

일정금액을 입금해주시고 성북문화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002-274868)

• 정기후원

다음 쪽의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절취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소득공제용 후원 영수증을 발급해드리며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북문화원 후원 신청서

□ 후원자 정보

이 름		주민(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E-mail			

□ 정기 후원(CMS)

금 액	□ 1만원 □ 2만원 □ 3만원 □ 기타 (원)		
예금주명		출 금 일	□ 5일 □ 15일 □ 25일
출금은행		계좌번호	

※ 정기후원의 경우 후원금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금융결제원의 CMS를 통해 자동 출금됩니다.

□ 일반 후원

현금 후원	성북문화원 2층 사무국 방문	
	□ 1만원 □ 2만원 □ 3만원 □ 기타 (원)	
계좌이체 후원	우리은행 1005-002-274868 예금주 : 성북문화원	
	□ 1만원 □ 2만원 □ 3만원 □ 기타 (원)	

위 각 항목은 회원님에 대한 연락, 문화원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과 후원금 자동이체CMS,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위해 수집하는 것입니다. 위 정보는 수집이용을 동의한 때부터 후원회원 탈퇴시까지(단,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자의 경우 최종발급 시기까지) 이용·보유합니다. 회원님은 이러한 수집·이용을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회원님에 대한 연락, 정보제공, 기부금영수증 발송, 보고물 발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성북문화원에 위와 같이 후원하기로 약정합니다.

2015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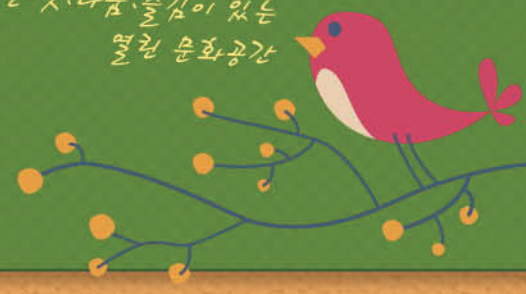
후원인 : (서명/인)

성북문화원장 귀하

2015

성북문화원 수강생 모집

깊은 맛·나눔·즐거움이 있는
열린 문화공간



	68기 봄학기 3~5월(12주)	69기 여름학기 6~8월(12주)
강좌기간	2015.03.02(월) ~ 2015.05.22(금)	2015.06.01(월) ~ 2015.08.21(금)
접수기간	2015.02.02(월) ~ 2015.02.27(금)	2015.05.01(금) ~ 2015.05.29(금)
수업무료참관기간	2015.01.26(월) ~ 2015.01.30(금)	2015.04.27(월) ~ 2015.05.01(금)

수업무료참관

관심있는 강좌의 참관을 통하여 강좌내용과 준비해야 할 사항을 미리 알아보고, 담당 선생님과 상담으로 보다 나은 맞춤형 강좌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접수 필수

- 접수방법** 인터넷 및 방문접수(성북문화원 2층 사무국)
- 문의전화** 02-765-1611
- 홈페이지** www.isbcc.or.kr
- 결제방법** 방문접수-현금 및 카드결제
인터넷접수-계좌이체(인터넷 접수 첫날은 오전 9시부터 가능함)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201-270900(예금주 : 성북문화원)

강좌별 개강.종강 일정

68기 봄학기 3~5월

봄	월	화	수	목	금
개강일	03.02	03.03	03.04	03.05	03.06
종강일	05.18	05.19	05.20	05.21	05.22

69기 여름학기 6~8월

여름	월	화	수	목	금
개강일	06.01	06.02	06.03	06.04	06.05
종강일	08.17	08.18	08.19	08.20	08.21

<휴관일> 68기 5/5(화) 어린이날, 5/25(월) 석가탄신일

2015 정회원 모집

1. 연 회 비 : 3만원
2. 혜 택 : 문화강좌 10% 할인, 연1회 역사문화탐방 무료, 문화행사 및 특강 우선초대, 문화원 발행 책자 및 소식지 제공, 정기총회 참석자격 부여 등
3. 접수기간 : 2015년 1월 한달간
4. 접수방법 : 인터넷 및 방문접수(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